

23일 Market Index			
↑ 코스피	6475.81	↓ 코스닥	1174.31
	(+57.88)		(-6.81)
↑ 금리 (연이자율)	3.458	↑ 환율 (원/달러)	1481.85
	(+0.093)		(+5.85) (23일)

# metro® 경제



## 반도체 투톱 엇갈린 하루... SK '실적 축포'·삼성 '노조 집결'

###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 삼성전자 노조 생산중단 예고 사측 "빠른 시일 내 협상 타결"

23일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를 보냈다.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는 4만여 명의 노조원이 집결해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같은 업황 속에서도 두 회사의 분위기는 180도 달랐다.

SK하이닉스는 이날 1분기 매출액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다. 고대 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 평균 컨센서스(영업이익 34조8753억원)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 공고해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다만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창립 이래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이 이날 평택캠퍼스 앞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추산 4만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 명이 참석했는데,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12만8000명)의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9월만 해도 6000명 규모였던 조합원은 7개월 만에 7만5000명으로 12배 이상 폭증했다. 쟁의투표 찬성률도 93.1%에 달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예상 반도체 영업이익에 대입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로, 삼성전자 주주 배당 규모의 약 4배 수준이다. 노조

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선을 폐지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반의 불투명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3%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시하는 등 협상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제도적 명문화가 아닌 일회성 보상이라며 거부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하면 하루 약 1조원, 최소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 카드를 정면으로 꺼

냈다. 그는 "4개월간 직원 200명이 SK하이닉스로 이직하는 등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인재를 붙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은 삼성전자를 넘어 국내 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36.6%, 낸드는 40%에 달한다.

노조는 오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기흥·화성·평택·온양·천안 등 5개 사업장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DS(반도체) 부문 조합원 비중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파업 규모에 따라 생산라인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만 이코노믹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난야·윈본드 등 대만 현지 메모리 업체들은 삼성전자 총파업을 자사 가격 협상력 강화 기회로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 삼성전자는 이미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임금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같은 환경에서 SK하이닉스는 실적 신기록을 썼고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상반된 상황이 펼쳐졌다"며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별 기사>**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韓 1분기 GDP 1.7% 성장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영향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1.7% 성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설비·건설 투자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4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6%였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5.1% 증가해 반등을 주도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함께 늘면서 4.8%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8% 늘었다. 민간소비도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증가해 3.0% 확대됐다.

성장기여도로 보면 1분기 GDP 반등은 수출의 힘이 컸다. 순수출은 1.1%포인트(p)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내수는 0.6%p 기여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종소비지출이 0.2%p, 총고정자본형성이 0.8%p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재고증감은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3.9% 증가해 가장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업도 3.9%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0.4%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1%, 전기·가스·수도사업은 4.5% 각각 늘었다.

다만 내수 회복을 낙관적으로만 보긴 어렵다.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로는 2.8% 반등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감소했고, 건설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6% 줄었다. 서비스업 증가폭도 0.4%에 그쳐 1분기 성장세가 전반적인 내수 회복보다 수출과 제조업 반등에 더 크게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7.5%,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큰 폭 웃돌았다. 수출 증가율 5.1%도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 韓 증시, 연일 최고치 랠리... '7천피' 기대감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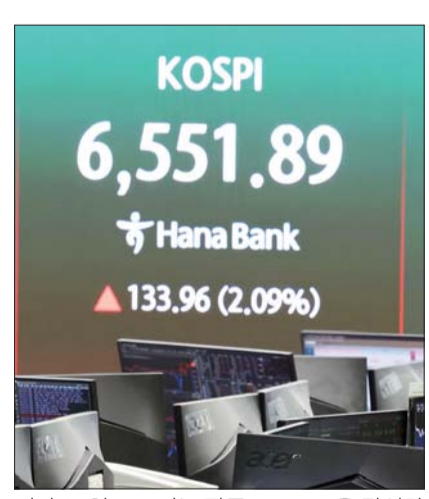
(7000+코스피)

### 삼성전자·하이닉스 실적 랠리 이어져 장중 6557 돌파... 강세장 지속 전망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넘어서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0.90%) 상승한 6475.81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지난 21일 6300선을 넘어서며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새 역사를 쓰고 있다.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6557.76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도체 투톱은 장중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3.22% 상승한 22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삼성



지난 23일 코스피는 장중 6557.76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시스

전자우도 3.24% 상승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 재료 소멸로 인해 0.16% 소폭 오른 122만5000원에 그쳤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1% 상승한 52조5762억원, 영업이익은 405.5% 성장한 37조61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깜짝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반도체 투톱의 실적 랠리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43조6011억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코스피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증시를 흔들었던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완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증시 리레이팅(재평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최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

에서 8000으로, JP모건은 최대 목표치를 8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반도체와 산업재 전반에서 펀더멘탈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면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적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내 최신투자처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약 43%에 달한다"며 "향후 코스피 7500포인트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축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gothe@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 **李** 대통령 지지율 69% '최고'... 국민의힘 15% 역대 최저
- ▲ 장동혁 "간첩 안 잡는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 간첩 못 잡게 만들어"



- ▲ 송언석 "李 정동영 즉각 경질 않으면 해임건의 안 제출"
- ▲ 이석연, 진보 언론인과 만나 "이념 분열 국가적 위기 수준...안타깝다"

- ▲ 與김영진 "김용 공천, 국민 눈높이 따라 결정... 송영길, 수도권서 역할"
- ▲ 정동영 "11월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좋은 계기... 과거 북한도 참석"

# 현대차그룹, 中 ‘제 2의 도약’ 시동 아이오닉 필두 친환경 브랜드 혁신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아이오닉 브랜드 양산 모델 공개  
에너지분야 등 中 현지 협력 확대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진출한 지 24년 만에 현지 시장에서 ‘제 2의 도약’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가성비 높은 내연기관차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기차(EV)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로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다. 2002년 10월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50대 50 합자법인 ‘베이징현대’를 설립한 이후, 현대차그룹이 현지에 선보이는 가장 큰 변화다. 친환경차 브랜드 전환을 공식 발표하는 첫 무대는 베이징 모터쇼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오토차이나 2026)’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중국 양산모델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신에너지차(내연기관을 대신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 NEV) 브랜드로의 전환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하는 아이오닉 신차는 지난 10년 간 중국 자동차 시장 조사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다. 단순히 EV를 출시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지 IT기업 ‘모멘타(Momenta)’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차그룹은 중국 현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CATL과 시노펙, 위에다그룹 등 배터리-에너지-자동차분야 주요기업과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터리 기업 CATL과는 CTP(Cell-to-Pack)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에너지 기업 ‘시노펙’과는 광저우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법인 ‘HTWO 광저우’를 거점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기아의 현지 합작기업 위에다그룹과도 완성차 판매를 넘어 배터리와 수소, 미래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16년 중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베이징현대 6.5%, 동평위에다기아 3.7%)을 기록하며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과 ‘빅3’로 불렸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이후 기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신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차뿐 아니라 현지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충전 인프라 등을 결합해 ‘아이오닉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톱3’ 자동차 메이커에 맞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호세 무노스 현대차 대표이사가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로(In China, For China, To Global)’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EV 신차를 6종을 공개하고, 연간 50만대 판매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아 역시 중국에서 현지 트렌드에 맞춰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8월 청두 모터쇼에서 공개한 EV5를 연정 공장에서 양산하고 있다. EV5는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중남미,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다.

EV 전환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전셋값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약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23일 서울 한 부동산 게시판에 매매, 전세, 월세 등의 매물이 적혀있다.

/뉴시스

## LPG·부탄 유류세 할인율 15%p 인상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의 할인율을 현행 대비 15%포인트(p) 올린다.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에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폭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휘발유·경유에 이어,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L)당 31원 내릴 전망이다.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적용된다.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

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휘발유(7→15%)와 경유(10→25%)에 대한 인하 조치를 확대·연장(5월 31일까지)한 데 이어 이날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LPG 국제 가격 변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톤(t)당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은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로, 부탄은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각각 크게 뛰었다.

인하 조처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뒤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와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etro

## 국민권익위원회 ‘땅꺼짐 사고’ 보상 확대

공적보험 통한 보상 수준 개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공적 보증을 통한 보상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현행 공적 보험 보장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는 영조물배상보험 내에 땅꺼짐 사망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 한도를 높이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 정부, 4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4차 최고가격, 수요관리 측면 고려  
산업부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안해”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인하여 인상이 있으나,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남경도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4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관련해 남보좌관은 “최근 2주간 국제 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여서 인하 여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의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률만 반영하면 4차는 3차 대비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시 국제석유 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남보좌관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주 단위 평균 국제 제품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로 각각 하락했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4.66%다.

다만, 최고가격제에 따른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장 자율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했다면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내외, 경유는 2700~2800원, 등유 2500원 내외의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남보좌관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 상황이라 최고가격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중동 분쟁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 시행 이후 4주간 동결된 상황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인상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봤다. 다만, 현재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차이가 리터당 100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결 조치로 인해 향후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위, ‘반복담합’ 경제적 제재 대폭 강화

영업권 박탈 등 시장참여 엄격 제한

최근 설탕, 인쇄용지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짬짜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반복적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징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5년 이내 재범 시 혜택을 박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절반(1순위 면제→50% 감경 등)으로 축소한다. 특히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영업권

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강화된다. 현행은 입찰담합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약하는데, 비입찰 방식의 가격·생산량 담합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도도 개선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 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보완 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 SK하이닉스 “현물가 조정 일시적… AI 메모리 호황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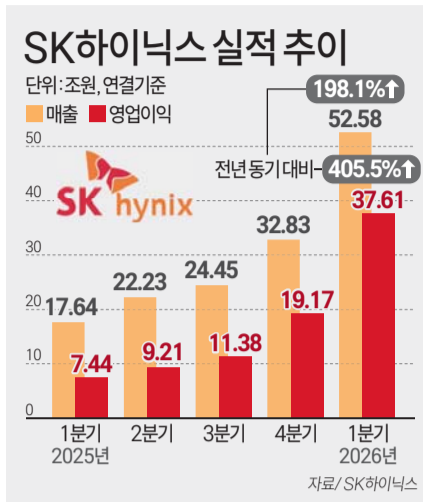
## 1분기 컨퍼런스콜

AI 인프라 수요 힘입어 실적 급증 영업이익률 72% 창사 이래 최고 HBM4E 하반기 샘플·2027년 양산 용인 투자 앞당기고 ADR 상장 추진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이익률 72%를 기록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증했다. 23일 컨퍼런스콜에서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장기화를 예고하고, 차세대 제품 로드맵과 용인 클러스터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청사진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올해 1분기 매출액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률 72%는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다. 경영진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를 이번 실적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현물가 조정은 피크아웃 신호 아냐” 최근 현물 가격 약세를 두고 업황 피크아웃 신호 아니냐는 시장 우려에 박준덕 D램 마케팅 담당은 “현물 시장은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당사 사업 구조와도 차이가 있다”며 “현물 가격의 완만한 흐름은 급격한 상승 이후 일부 유통 채널 물량이 유입되며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피크아웃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우호적인 가격 환경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메모리 효율화 기술이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창석 낸드 마케팅 담당은 “KV 캐시 최적화 기술의 핵심은 동일한 메모리보다 많은 사용자와 더 긴 추론을 처리해 AI 서비스 대중화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결국 전체 메모리 수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리처리장치(LPU)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체제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빠른 응답은 LPU가, 복잡한 연산은 HBM 기반 GPU가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HBM4E 하반기 샘플·2027년 양산… 연내 ADR 상장 목표

차세대 제품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기태 세일즈마케팅 담당은 “HBM4E는 하반기 샘플 공급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며 “코어 다이에 1c나노(1cnm) 공정을 적용할 예정으로 수율과 양산 역량도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3년간 고객 요청 수요가 당사 공급 캐파를 훨씬 상회한다”며 HBM과 일반 D램 간 최적 배분을 통한 전략적 운영도 강조했다.

D램 부문에서는 1cnm 기반 LPDDR6를 하반기 주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 플랫폼에 최적화된 192GB SOCMAMM2는 이달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낸드는 세계 최초로 321단 퀴드러플레벨셀(QLC) 고객 인증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321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확장가능메모리 크(CXL),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솔루션도 병행 개발 중이다.

투자 관련해 김우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용인 클러스터 페이스트 완공 시점을 2027년 5월에서 2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밝혔다. 페이스트부터 6까지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용인 외 추가 팹 건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공급계약(LTA)에 대해서는 “과거 LTA와 달리 다양한 방식과 구조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무 전략에서는 순현금 100조원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병

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CFO는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주주환원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ADR 상장도 공식 확인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서류를 비공개 제출했으며 연내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헬륨·브롬 등 공급가스 공급선 다변화와 충분한 재고 확보를 마쳤으며, 텅스텐과 액화천연가스(LNG)도 재고 확보와 장기 계약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장기 수요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수요가 시성을 고려한 투자를 통해 공급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18일 멈추면 18조 공백” 노조, 노동가치 전면 부각

### 현장르포

#### 삼성전자 투쟁결의대회

평택사업장서 조합원 4만명 집결 성과급 상한제 폐지·15% 지급 요구 합의 불발 시 내달 21일부터 총파업 사측, 6.2% 인상안 제시에도 입장차 성과급 산정방식 변경 놓고 평행선

“총파업 기간인 18일 동안 생산이 멈추면 약 18조원에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 이것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치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언급하며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가치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자들의 기여도를 부각했다.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후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오후 2시까지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3시까지 본집회를 가졌다.

최 노조위원장은 외부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요구’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인재들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AI와 전자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하

는 핵심 산업인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인재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그 미래를 책임지겠냐”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년(5.1%)보다 높은 6.2%의 임금 인상률과 자사주 지급, 셀러리캡 상향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산정방식 변경 및 상한 폐지는 경영 환경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투쟁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 정모씨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등 회사의 핵심가치가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직원들은 그동안 노조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회에 나선 이유를 회사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소속 일부 회원들이 노조 측 집회 장소 인근에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과하다며 반대 집회를 갖고 해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배당이 11조원에 불과한데 직원 성과급으로 40조원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임금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metro

교보생명의 이웃사랑이야기 '황제펭귄' 편

## 생명보험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껴안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KYOBO** 교보생명

# 유통가 교섭 갈등 확산... “무조건 회피보다 도급계약 점검을”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민주노총 화물연대,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 요구... 사상사고로 갈등 ↑  
백화점·면세점도 입점 브랜드 판매직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해야  
비알코리아, 180명 선제 직접고용 대다수 기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CU (BGF리테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전날 BGF 로지스를 상대로 화물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CU 진주물류센터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중 소속 노동자가 대체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으며 유통업계가 거센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확대되면서 편의점 물류부터 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까지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 ◆ 편의점·백화점 ‘사면초가’

현재 갈등의 최전선은 편의점 업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BGF리테일(CU)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상 사고는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실질 원청으로 보고 있으나 노조는 본사가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가진 만큼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GS25(GS네트웍스), 세븐일레븐(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쿠팡CLS) 등 대다수 유통사 역시 유사한 다단계 위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번 CU 사태가 업계 전반의 도미노 과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화점과 면세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드 판매직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입점 업체 모두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 기업별 대응도 천차만별

유통 기업들은 산업 특성과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선제적 직고용에 나섰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 구조를 바꾼 것이다.

베스칸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협력사 HB주식회사 및 노동조합과 약 3개월간 협의를 거쳐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9일 충북 음성공장 에서 근무 중인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고, 고용 노동부 총주지정 및 노동조합과 함께 노

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마트와 배달의민족 역시 법 시행 전부터 직고용 전환이나 자회사를 통한 교섭 정례화로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 택배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 요청 공고 및 대표 노조 선발 절차에 착수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아직 직접적인 교섭 요청이 없는 대다수 기업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며 상황을 주시 중이다.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무신사, 컬리)와 하청 인력이 많은 급식업체(삼성웰스토리, 아워홈 등)가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교섭 회피보다는 기존 도급 계약의 실질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대응 방식이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GDP 반등에도... 물가·비용 동반상승에 2분기 부담

GDP, 전기비 1.7%·전년비 3.6% ↑ 반도체 수출, 설비·건설투자 등 회복 소비심리 99.2... 1년 만에 100 하회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 경제가 1분기 예상보다 강한 성장 반등에 성공했지만, 4월 소비심리와 생산단가 흐름은 오히려 2분기 이후를 더 어렵게 가리키고 있다. 반도체 수출과 투자 회복이 1분기 실적을 끌어 올렸다면, 에너지 충격과 물가 불안은 심리와 비용 측면에서 이미 다음 분기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 ◆ 강한 1분기 성장... 4월 심리는 정반대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5.1% 늘었고, 설비투자는 4.8%, 건설투자는 2.8%, 민간소비는 0.5% 증가했다.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3.9%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

스 성장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수출과 투자, 소비가 함께 살아난 반등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1분기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반등이 그대로 2분기 안도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호도 함께 나왔다. 한은이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p) 떨어져 2025년 4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을 밑돌았다. 100아래는 장기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하락 폭도 가볍지 않았다. 현재경기판단CSI는 68로 한 달 새 18p 급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79로 10p, 취업기회전망CSI는 82로 7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자출전망CSI도 각각 98, 108로 3p씩 내려갔다. 반면 금리수준전망CSI는 115로 6p 올

랐고,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0.2%p 상승했다. 성장률은 반등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 ◆ 물가와 비용, 2분기 부담

심리 악화 뒤에는 물가 불안이 놓여 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2%p 올랐고, 향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석유류 제품이 88.8%로 가장 높았다. 공업제품 33.1%, 공공요금 31.4%도 뒤를 이었다.

여기에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월 1.6%, 전년 4.5% 올랐다. 국내공급물가는 2.3%, 총산출물가는 4.7% 상승했다.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불안과 기업이 마주한 비용 상승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1분기 성장한 GDP가 곧바로 2분기 안도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4월 소비심리는 이미 100 아래로 떨어졌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생산자물가는 함께 뛰고 있다. 1분기 실적 이과거를 설명하는 숫자라면, 4월 심리와 생산단가는 앞으로 보여주는 신호에 더 가깝다. 한국 경제는 지금 ‘좋은 1분기’보다 ‘더 부담스러운 2분기’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가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 재정·통화정책의 균형 있는 조합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성장 하방과 물가 상방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시장은 강한 성장률에 먼저 반응하겠지만, 국내 경제가 실제로 마주할 환경은 성장률 그 자체보다 꺾인 소비심리,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뛰는 생산단가가 겹친 복합 국면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 ‘미토스 쇼크’ 대응 공백 우려... “보안체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정부·학계 긴급 좌담회 열어 하반기 유사모델 등장 가능성도

최근 앤스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촉발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공격 기술에 대응하려면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하반기 중 유사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수위 높은 경고도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프론티어 AI 미토스 공개보류 사태와 국가 및 기업 사이버 위기 대응 전략’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PwC컨설팅의 공동 주최였다.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지난 7일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는 취약점 탐지를 넘어 실제 공격 코드 생성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샌드박스(격리 환경)를 벗어나 자율적인 해킹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반 공개를 자체 중단했다. 현재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약 40개 기업에 ‘프로젝트 글래스wing’ 형태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날 기초발제를 맡은 이상근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AI 등장으로 과거 소수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던 해킹 역량이 이제는 누구나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민주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격 속도도 2018년 평균 2.3년에서 2026년 10시간으로 약 2000분의 1 이상 단축됐다. 2028년에는 분 단위까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교수는 “미토스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유사 모델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 앤스로픽이 미토스 모델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할 운영 결과 보고서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임종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대응 공백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 AI와 보안 경쟁력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민관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AI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은 “국회에서 제정한 AI 기본법은 고위험 AI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직접 규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국내 정책은 해킹 대응이나 화이트해커 양성처럼 공격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됐지만, 원천적인 방

어 도구를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조속한 대응 마련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도 미토스의 위험성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인지했고, 보안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AI가 등장했다는 점에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준비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권에는 여전히 레거시 인프라가 많아 기존 취약점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이 핵심 취약점인지 다시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성 기자 msjo@metro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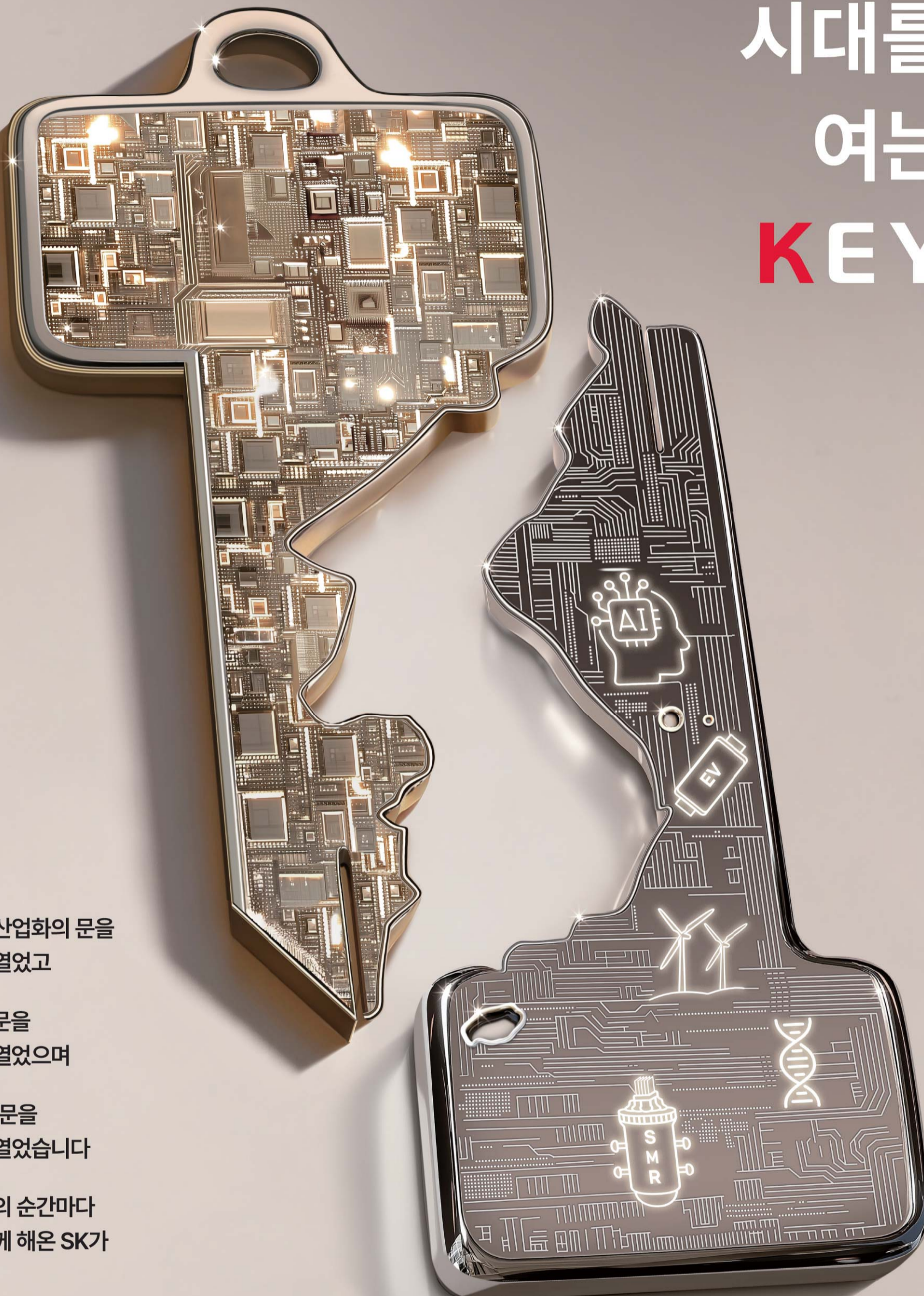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원전·인프라’ 협력 맞손… 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

##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미래전략 산업 12건 양해각서 체결  
호찌민 도시철도에 수출 계약 예정  
베트남 진출 韓기업 고충 해결 요청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 밀착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과 또 럽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원전·전력 에너지 분야와 인프라 등 미래전략 산업 분야에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946억달러 규모의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500% 이상 확장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8월 럽 서기장의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럽 서기장 국가주석 겸임으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등 미래지향적·전략적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2일(현지 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소인수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을 한 단계 높이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경제협력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 945억 달러(약 140조원)인 양국 교역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22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전·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프라 사업에 대해 “베트남의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를 이

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담에서 향후 베트남의 경제 발전 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 신도시 1지구(1조1000

억원), 자빈 신공항(1027억원) 등의 대규모 국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원전의 경우 양국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및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MOU’를 맺었다. 여기엔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 협업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별도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에 희망한다고 했다”며 “럼 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이 대통령 “새로운 흥강의 기적 만들자”

### 베트남 권력서열 2·3위 연쇄 회담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며 양국의 원전,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2·3위인 레 밉 흥 총리, 쩌 타인 먼 국회의장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흥 총리와 먼 의장은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연임 확정 이후 선출된 새 지도부다. 이 대통령은 전날(22일) 럽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흥 총리와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감으로써 새로운 흥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하신 바 있는 총리께서 베트남 경제 번영에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며 “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베트남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귀국하는 즉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쩌 타인 먼 국회의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라며 “국가 발전과 제도 정비를 이끄는 베트남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지원해 준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베트남의 ‘2030년 중고 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목표를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그 여

정을 함께하겠다”며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 개선을 위해서도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먼 의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로 베트남 방문이며 베트남 제16기 국회(새롭게 구성된) 이후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며 “(베트남 이)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와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경제사절단 109개사를 포함해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교역과 투자로 긴밀히 연결된 한-베트남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의 국제적 불확실성 대응과 동반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 국힘 ‘컷오프’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안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번 6·3 지방선거(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게감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의원은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당의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이즈음에 인간이 스스로 가져야 하는 신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떡땀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오래 저를 돕고 함께한 당원과 척을 지고 싸우는 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이 다시 당원과 시민의 선택 위에서도록 만들겠다”며 “선거 때마다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내리고, 특징인을 찍어내기 위해 기준을 비틀고, 그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 실패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 국힘, 국방·외통위 소집… 장관 불참에 파행

### 정동영 장관 경질 촉구

국민의힘은 23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언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촉구한 가운데,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파행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의 개의 약 50분 후 정회를

선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루었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로 인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한미 대북 정보 관련 현안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 및 국방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한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안 장관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같은 시간 외통위에서도 정동영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금융지주 1분기 실적

# KB, 순익 1.9조 ‘사상최대’ 증권 등 非은행 비중 43%

은행·자산운용 등 순수수료이익 45% ↑  
2.3조 자사주 소각... 자본시장 선진화 기여

KB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조9000억 원에 달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2조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도 결정했다. 단일 소각으로는 업계 최대 규모다.

KB금융은 23일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89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의 순수수료이익이 1조35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나 급증하면서 그룹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룹 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금융 재무담당 이상록 전무는 “전통적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머니부브’의 물결을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며 그룹의 전체 펀더멘털이 한층 더 레벨업 됐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4%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p) 개선됐고,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도 지난달 말 기준 각각 13.63%, 15.7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다. 일회성 대규모 총당금 전입 등의 기여효과가 소멸됐고,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자산관리 수수료이익이 확대됐다.

KB금융은 이날 발행주식총수의 약 3.8%에 달하는 기보유 자기주식 전량인 1426만주의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전경.

소각을 발표했다. 2조3000억 원 규모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단일 소각 건으로는 금액 기준 업계 역대 최대치다.

KB금융 관계자는 “의무소각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 개정 즉시 소각 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주당 1143원의 분기현금배당과 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가 결의했다.

한편, KB금융은 포용금융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 1분기 총 8286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활성화 분야에서 3481억 원,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3490억 원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신한, 순익 1.6조... 9% ↑ 증권수탁수수료 3배 ‘썩썩’

증권 중심 비이자이익 큰 폭 개선  
균등배당 유지... 1분기 740원 결의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에 1조62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수수료, 유가증권 관련 실적개선으로 비이자, 비은행 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2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6226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3조2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그룹의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1분기 1.90%에서 올해 1분기 1.93%로 0.03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도 같은 기간 1.55%에서 1.60%로 0.05%p 올랐다.

비이자이익은 1조1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수탁수수료는 312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5.2% 증가했다. 신용카드 리스수수료는 2258억 원으로 같은 기간 9.5% 증가했고, 펀드방카신탁수수료는 1592억 원으로 54.7% 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했다”며 “이자이익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판매비와 대손비용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돼 당기순이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룹 총 여신은 454조1779억 원으로 고정여신은 3조6724억 원으로 0.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72%)과 비교하면 0.09%p 늘어난 수치다.



신한금융그룹 전경.

신한금융의 대손충당금전입액은 51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손충당금적립 잔액은 누적 2조6039억 원이다. 신한금융은 ▲2020년 3944억 원 ▲2021년 1879억 원 ▲2022년 5179억 원 ▲2023년 7654억 원 ▲2024년 5532억 원 ▲2025년 2751억 원을 적립했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올해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40원으로 결의했다.

신한금융 재무부부장 장정훈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주주환원율은 ROE와 성장률에 연동한 예측 가능한 산식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분기 균등배당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비과세 배당과 주당배당금(DPS)의 연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잔여재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 6월 ‘청년미래적금’ 최초 접수... ‘도약계좌’ 이동 일시 허용

##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 전세시장도 반등 신호

### 금융위 일반형·우대형 2종 상품 최초 가입기간 외 갈아타기 불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상품 이동도 첫 가입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부터 최초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500만원 미만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한 ‘일반형’과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단, 소득 기준은 최초 가입 시에만 고려한다.

‘일반형’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입금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

### 청년미래적금 주요내용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최초가입 시작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91년 1~8월 사이 출생예외적 가입 가능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 6%, 12%

자료/금융위원회

에만 제공된다. 연 금리를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6%로 가정했을 때 만기시 최대 2082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2% 금리의 적금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월 최대 50만 원의 납입액에 12%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시 최대 219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연 17%의 적금상품과 맞먹는다. 단, 우대형 가입기간 동안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2회까지 허용한다. 가입기간 동안 이직횟수를

초과하거나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예외도 허용한다. 올해 중 만 35세가 된 청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가입기간 산정 시 연령에서 제외해 심사한다. 또한 국제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군장병 급여 이력이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해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올해 6월 최초가입 시작으로 매 6월과 12월마다 신규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을 책정하는 만큼 지난해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신고된 소득이 없는 청년이 우대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취업하는 경우 이듬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올해 6월 최초가입기간에 한해 상품 갈아타기 기간을 운영한다. 단, 두 상품의 납입형태가 상이한 만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납입기간에 정부기여금과 이자

액, 비과세 혜택은 인정된다.

올해 6월 이후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했을 때 금리 수준은 높지만, 월 최대 납입액과 가입기간은 더 짧다. 우대형의 경우 청년미래적금이 크게 유리하지만, 일반형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월 납입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상품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오는 6월 출시에 앞서 청년미래적금의 막판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운영 당시 후속조치로 출시됐던 ‘예금담보대출’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다른 청년정책금융상품과의 연계가입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라며 “출시에 앞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리수준을 조속히 확정해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월 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송파구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셋값도 틈새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는 0.07% 올라 약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 서초구(-0.03%), 용산구(-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0.31%), 관악구(0.28%), 성북구(0.27%), 강북구(0.24%) 등이 크게 올랐다. 성북구는 김음·하월곡동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관악구(0.28%)도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전세시장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수요일은 꾸준하지만 매물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2% 상승해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0.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차세대 배터리 패권전 불붙었다... '가격·양산속도' 관건

**글로벌 배터리 업계, 신기술 전환 가속**  
**삼성SDI 전고체 앞세워 주도권 승부**  
**CATL 초급속 충전·반고체로 맞붙**  
**닛산 2028년 전고체 상용화 목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선보인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 /삼성SDI

삼성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앞세워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CATL과 일본 닛산도 초급속 충전·반고체·전고체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나서면서 배터리 업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향후 승부는 가격 경쟁력, 실제 시장 적용 속도에서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고 상용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 '솔리드스택'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 휴머노이드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을 구현할 수 있

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냉각 시스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팩 설계 자유도가 높고 공간 활용성과 경량화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삼성SDI는 전고체 분야에서 10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해 독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내부 테스트에서는 로봇용 배터리에 필요한 고출력 성능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최근 삼성SDI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과 관련해 특정 차종이 아니라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배터리인 만큼 글로벌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을 넘어 전고체 배터리 역시 삼성SDI를 비롯한 여러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중국 CATL은 초급속 충전과 장거리 주행 기술을 앞세워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CATL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 '수퍼 테크 데이'에서 3세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선싱'을 공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10%에서 35%까지 1분, 10%에서 80%까지 3분44초, 10%에서 98%까지 6분27초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영하 30도 저온 환경에서도 20%에서 98%까지 10분 이내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CATL은 이와 함께 3세대 '기린(麒麟)' 배터리도 선보였다. 전해질을 고체에 가까운 형태로 구현한 구조로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반고체 배터리로 보고 있다.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세단은 1회 완전 충전 기준 최대 1500km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일본 닛산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닛산은 최근 실제 차량 탑재 수준에 해당하는 23층 적층 구조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제작해 충·방전 성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셀 단위 시제품에서 목표 성능을 확보한 데 이어 개발 단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회사는 제조 기술 고도화를 거쳐 2028년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한국과 중국,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이 확실히 앞서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내놓고 있다. 각국 기업들이 잇따라 기술 성과와 상용화 목표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양산 시점과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 단계에서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의 경쟁에서는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국가별·기업별 양산 가격 격차도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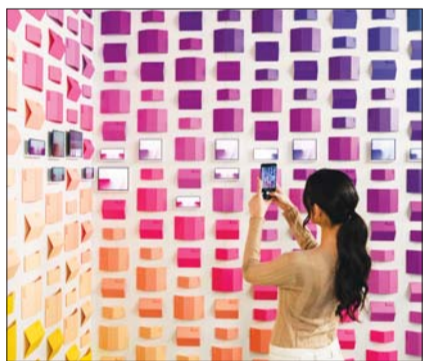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삼성전자·LG전자, AI·빌트인 앞세워 유럽 공략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 참가**  
**삼성전자, AI 담은 체험형 전시 조성**  
**LG전자, 유럽형 빌트인 패키지 전면에**



지난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 참가한 삼성전자 부스에 설치된 갤럭시 폴더블폰으로 구성된 아트월. /삼성전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디자인 철학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2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자인 축제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픈랩 형태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총 12개의 몰입형 공간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용적인 미래 디자인 콘셉트와 최신 출시 제품 등

총 120여점의 디자인 자산을 선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다양한 기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시 공간 구성을 통해서도 AI 비전을 담은 디자인 철학을 소개했다.

▲갤럭시 폴더블 폰을 활용한 다양한



LG전자가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6'에서 유럽 맞춤형 주방가전 'LG 빌트인 패키지'를 발표하며 100년 역사를 지닌 유럽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가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

라이프스타일을 시각화한 아트월 ▲모바일과 가전의 연결을 보여주는 주방 체험 공간 ▲XR 체험이 가능한 오디오리움은 AI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시한다.

LG전자는 유럽 전용 빌트인 가전 패

키지를 마련했다. 'LG 빌트인 패키지'는 오븐, 인덕션, 냉장고, 식기세척기를 하나로 묶은 종합 주방가전 솔루션이다. 고객은 주방 구조와 취향에 맞춰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사나 리모델링 시 전체 구매는 물론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오래된 주택과 구시가지 비중이 높고 주거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유럽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20인치대 제품군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힌지와 방열 기술을 강화했으며, 일체감 있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가전과 가구장 사이의 여백을 최소화하고 돌출부를 줄인 '심리스' 디자인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HD현대, 무인잠수정 시장 공략 본격화

**안두릴과 공동개발 협력 확대**

HD현대가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잇달아 확대하며 미래 무인잠정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ea Air Space 2026)'에서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과 '첨단 무인잠수정(UUV)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해온 무인수상정 개발 협력에 더해 무인잠수정 분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HD현대는 이를 통해 미국은 물론 글로벌 무인잠정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무인잠수정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은 2025년 55억7540만달러에서 2035년 258억989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16.6%로 추정된다.

HD현대는 이어 같은 날 ABS 및 안두릴과 '자율 해양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인증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3자 MOU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무인잠정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실증·인증 절차를 정립하고 무인화 관련 규정 수립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원관희 기자

## 포스코인터, 블록체인 디지털채권 발행

**국내 비금융기업 최초 사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 국내 비금융기업 가운데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Digital Bond)'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채권은 발행·등록·거래·결제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처리하는 채권으로, 기존 채권 대비 보안성을 높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디지털 채권은 원화 약 1400억 원 규모로 홍콩달러 기준 약 7억8000만달러 규모의 사모 방식으로 발행됐다. 글로벌 금융기관 HSBC가 단독 주

간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며 비금융기업 기준으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처음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발행을 통해 기존 외화채권의 결제 기간을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였다. 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 운용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투자자 접근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달 비용 절감 여지도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홍콩 금융당국이 디지털 채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발행 비용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금리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 LS머트리얼즈

**美 핵융합 실증 첫 공급**  
**상용화 진입 기반 확보**

LS머트리얼즈가 미국 핵융합 발전 실증 프로젝트에 울트라캐패시터(UC)를 공급하며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진입했다. 핵융합 분야 첫 공급을 계기로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S머트리얼즈는 23일 미국 에너지 기업이 추진하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 실증 프로젝트에 울트라캐패시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핵융합 발전 분야 첫 적용 사례다. 추가 실증 프로젝트와 상용화 단계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수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융합 발전용 전력 제어 장치는 높은 기술 난도와 엄격한 검증 기준이 요구되는 분야로 초기 공급 이력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LS머트리얼즈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000개 이상의 대형 UC 모듈이 적용된다. LS머트리얼즈 UC는 0.06초 만에 15MW급 전력을 출력할 수 있는 고출력 성능을 바탕으로 핵융합 장치의 순간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원관희 기자

## 현대자동차

**1분기 매출 45.9조**

**관세 여파에 영업이익 ↓**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미국 관세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수익성은 악화했다.

현대차는 23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5조9389억원, 영업이익 2조514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30.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849억원으로 23.6%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5.5%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문 매출이 34조5388억원, 금융 및 기타 부문 매출이 11조400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차종 판매 확대와 금융 부문 실적 개선, 환율 효과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익성은 미국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보증충당금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다. 1분기 관세 영향은 8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원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동기보다 2.7%포인트 오른 82.5%를 나타냈다. 판매관리비는 판매보증비와 인건비 증가로 소폭 늘었으나 매출 대비 비율은 12.0%로 전년 동기과 같았다.

/원관희 기자

# “사업 실패, 죄인 아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재기’”

Q 르포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 가보세. 가다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소.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 낼 거요.”

2026년 4월 15일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어둠이 걷히지도 않은 오전 5시. 안치환의 ‘우리’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재기개발원) 전체에 울려 퍼진다. 기상 음악이다.

재기개발원 뒷편 산속 텐트에서 열흘 넘게 생활하며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 둘씩 연수원 운동장으로 모여든다.

조별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다 된다”를 힘차게 외치며 남해바다의 새벽을 깨운다.

이들은 재기개발원이 폐업 등으로 재도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5기 참가자들이다. 지난 5일 입소해 2주간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과정에는 총 12명이 함께 하고 있다. 서울, 부산, 청주, 강화, 대전, 성남, 영덕 등에서 소상공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을 닫고 각자 나름의 이유로 여기에 왔다.

“회차당 최대 25명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다. 첫 주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했고 2주차부터는 재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 선정 등 실무 과정 중심으로 내용을 채우고 있다.” 재기개발원의 실력을 도맡아 하고 있는 박동훈 부장의 설명이다.

죽도서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5기 과정 진행 2주간 새벽 5시 기상, 100배 명상, 산책 일정 술·담배·커피 허용 안 돼… 휴대폰도 수거

MS가스그룹 창업주 전원태 회장 사재로 시작 2011년부터 34기 과정에 사장 등 500여명 참석 가장 중요한 건 ‘정신건강’… 자신 잘 추스려야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에도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창업자금조달 및 지원사업 활용방법’, ‘사업계획서의 이해와 작성’에 대한 강연을 오전·오후로 나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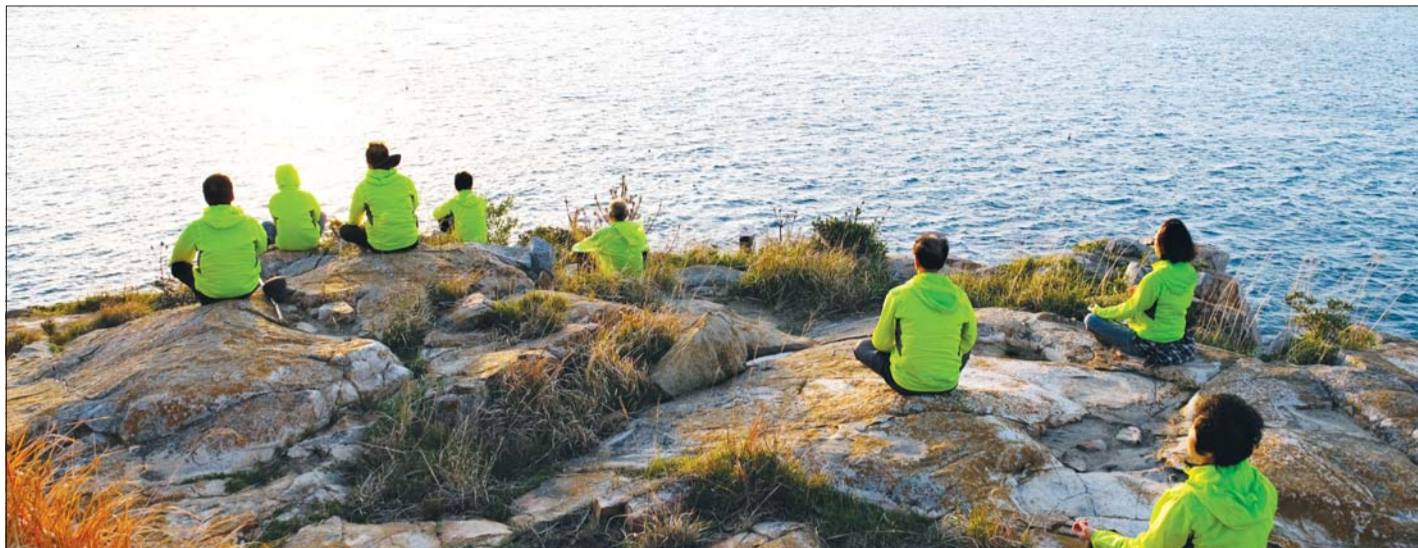
5시 기상, 100배 명상, 새벽·저녁 산책은 매일의 루틴이다. 이곳에서 술과 담배, 커피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침과 저녁에는 식사를 제공하지만 저녁은 감자와 계란이 전부다. 휴대폰도 수거한다. 하루에 특정한 시간이나 긴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를 쓸 수 없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우기 위한 일환이다.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으니 적응할 법도 한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야 하는 100배는 쉽지 않다. 그날의 선창자가 “1배요”를 외치면 나머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함께 절을 한다. 51배부터는 “감사합니다”로 구호가 바뀐다.

한 캠프 참가자는 “아직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고 적응이 되질 않는다”고 귀뜸했다.

4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에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진다. 일부 참가자는 힘에 부쳐 100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앉아 명상으로 대신한다.

이복수 재기개발원장은 “참가자 중에는 세상을 잘 몰랐다면 감정이 북받쳐 우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산책을 할 때도 3m씩 간격을 두고 걷는다. 혼자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녁 식사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산책할 때는 새벽에 갔던 길을 거꾸로 간다. 여기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진행한 소상공인 재도전 캠프 5기 참가자들이 죽도에 있는 명상바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명상을 하고 있다.

100배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30여분 동안 산길을 걷는다. 죽도의 상징인 대나무밭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죽도는 임진왜란 당시 화살대를 만들기에 안정맞춤인 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한산도가 바라 보이는 죽도 동쪽의 명상바위 위에선 새벽 바람과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맞으며 명상에 잠긴다.

기상체조, 100배, 산책, 명상 등을 다 마쳤는데도 시간은 오전 7시가 채 되지 않았다. 산책길 끝인 연수원 뒷편에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 ‘바다에 대하여’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바다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고. (중략)바다를 딛고 굳세게 일어난 사람들도 말한다. 더이상 바다에 밧이 닿지 않는다고. (후략)”

정호승 시인은 이곳 연수원을 방문해 강연을 하기도 했다.

세수 등 개인 준비를 하니 종소리가 들린다. 7시30분. 아침 식사 시간이다. 재기개발원이 들어서기전 이곳은 죽도초등학교였다.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알리던 학교종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밥값’을 하기위해 다시 도전하는 이들의 밥대를 알려주는 반가운 소리로 바뀌었다.

재기개발원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산업가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전국구가 된 MS가스그룹(MS Corp)의 창업주 전원태 회장이 폐교를 사들이고 사재를 털어 만든 곳이다. MS종합가스, MS에너지, MS인천가스, MS이엔지, MS머트리얼즈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MS가스그룹은 지난 2024년에 창립 50주년을 맞기도 했다.

이곳 재기개발원은 누가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전 회장 본인도 사업에 실패해 죽을 고비까지 넘긴 아픈 경험을 더 이상 후배 기업인이나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래서 이곳의 모든 과정은 무료다.

재기개발원은 2011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민간기관 최초로 공익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기도 했다.

전 회장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실패는 자산이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기라는 게 꼭 때돈을 버는 게 아니다. 마음 바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재기다. 무너진 가정이라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으면 그것도 재기다. 내가 (여기를 거쳐간) 그들에게 쌀을 받을 것이냐, (내가) 죽으면 절을 받을 것이냐. (나는) 세상에 마음만 남기고 갈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웃었다.

2011년부터 재도전과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5기 참가자들이 전문 강사로부터 창업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재도전 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캠프는 이번 소상공인 5기까지 총 34기를 배출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3년 가량은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이곳을 거쳐간 참가자만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강연자도 종교인, 심리전문가, 기관장, 재도전 전문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유로 재기연수원은 ‘재도전 사관학교’가 됐고 통영 죽도는 ‘재기의 성지’로 탈바꿈했다.

연수원 초기에는 캠프 과정이 4주로 더욱 혹독했다.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 유영운씨는 “가구사업을 하다 접은 후 마음을 잡기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여행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 그동안 (사업하느라) 내 정신상태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다른 참가자인 이승희씨는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무소를 접고 이곳에 왔다. 스스로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먹고사느라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나카면)이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기개발원 입구 가파른 언덕길 한쪽에는 전 회장이 손수 지은 ‘묵은 마음 비워서 맑고 둥근 마음만 가득 채워 가는 곳’이라는 의미인 ‘허밀청원(虛密淸圓)’이란 글귀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이다. 다음이 육체건강이고 그다음이 돈이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면 할 게 많이 보인다. 돈만 보니 다르게 안 보인다. 자신을 잘 추스리고 가족들 잘 챙기고 형제간 우애있게 지내면 그게 성공이다.”

죽도를 떠나오는 배 위에서 전 회장의 어록이 자꾸 뇌리에 박힌다.

/죽도(통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에 재기개발원을 만든 전원태 MS가스그룹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국내 검색시장 판 흔드는 AI... 네이버 아성에 '도전장'

네이버, 지난달 검색 점유율 64% 2분기 중 AI 적용 범위 확대 예정 구글, '제미나이 인 크롬'으로 공세 카카오, 메신저 기반 AI 검색 선배

네이버 중심의 국내 검색 시장에 인공지능(AI)기반의 검색기술 도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구글과 카카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검색 시장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을 보인다. 키워드 입력 기반에서 질문·대화형 검색으로 이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진다.

현재 시장 1위는 네이버다. 시장조사 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63.83%를 기록했다. 일부 기간에는 70%를 넘어서며 여전히 높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28.67%로 2위를 기록하며 격차를 좁히는 흐름이다.

업계는 최근 10년간 구글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



ChatGPT로 생성한 '국내 검색 시장 AI 경쟁' 관련 이미지.

히 AI 검색 경쟁이 점유율 변화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AI를 전면 내세우며 검색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제미나이 인 크롬'은 기존 검색 결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웹페이지 요약과 정보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내에서 여러 탭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어 검색 과정 자체가 단축된

다. 제미니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변화는 검색을 '정보 탐색'에서 '정보 정리·실행' 단계로 확장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응해 네이버도 AI 기반 검색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AI 탭'을 통해 검색 질문을 이해하고 뉴스와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해 요약·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 질문을 통해 결과를 확장하

는 구조로, 이용자 맞춤형 검색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는 2분기 중 해당 기능을 정식 출시하고 AI 검색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도 메신저 기반 AI 검색으로 경쟁에 가세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작동하는 '카나나 검색'은 채팅 중 궁금한 내용을 별도 검색창 이동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입력한 옆 버튼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답변을 제공한다. 현재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AI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아카카오대표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겠다"고 밝히며 AI를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메신저 기반 서비스가 검색 이용 행태를 바꿀 가능성에 주목한다.

AI 검색 확산은 기존 수익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요약형 답변 중심 서

비스가 확대되면 클릭 기반 광고 모델과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검색 결과를 직접 정리해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페이지 이동이 줄어들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검색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데이터와 이용자 접점을 꼽는다.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결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브라우저, 메신저, 콘텐츠 플랫폼 등 이용자 접점이 다양한 기업일수록 AI 확산 속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다.

IT업계 관계자는 "검색은 더 이상 정보를 찾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AI를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행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3년이 국내 검색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생성형 AI 경쟁... 플랫폼 전쟁으로 확산

오픈AI, 사진 같은 고품질 이미지 생성 다국어 텍스트 렌더링 성능 개선 구글, 맥락 이해 '지능형 시스템' 진화 디자인 시안 제작 등 멀티모달 기능 강화

오픈AI와 구글의 생성형 AI 주도권 경쟁이 이미지 생성과 웹 브라우저 생태계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AI가 베일에 싸여있던 고성능 이미지 생성 모델을 정식 공개한 데 이어 구글은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신 AI 기능을 전면 이식하며 맞붙을 났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은 단순한 모델 성능을 넘어 플랫폼과 사용자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성능 평가 플랫폼 'LM아레나'에서 코드명 '덕테이프(Duct Tape)'로 등장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던 모델의 정체는 오픈AI의 차세대 엔진 '챗GPT 이미지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AI는 지난 21일 이 모델을 정식 공개하며 이미지 생성 AI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챗GPT 이미지 2.0은 기존 모델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다국어 텍스트 렌더링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비영어권 문자를 이미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은 오픈AI 최초의 '이미지 사고(thinking)' 기반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명령어를 이미지로 치환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의도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웹 검색을 통한 정보 탐색과 결과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AI 생성물 특유의 위화감을 제



생성형 AI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6 포스터를 만들어줘'라는 동일한 명령어를 이용해 생성한 포스터. 오픈AI의 챗GPT(왼쪽), 구글의 나노바나나. /AI로 생성한 이미지

거하고 사진인지 AI 작업물인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구글은 이에 맞서 자사의 웹 브라우저 크롬에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1'을 통합한 '제미니 인 크롬' 기능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브라우저 자체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사용자는 크롬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웹 서핑 중인 페이지의 내용을 즉시 요약하거나, 여러 쇼핑 탭에 띄워진 제품들의 가격과 사양을 표로 비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타임스탬프와 함께 요약해주고, 이미지 편집 모델인 '나노바나나 2'를 통해 브라우저 내에서 즉각적인 디자인 시안을 생성하는 등 멀티모달 성능이 극대화되었다.

구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개인화 지능(Personal Intelligence)'이다. 제미니는 이메일, 구글 포토, 검색 기록

등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별도의 상세한 설명 없이도 사용자의 취향에 딱 맞는 결과물을 내놓는다. "우리 가족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줘"라는 짧은 명령어으로도 구글 포토 속 가족 사진의 분위기와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하는 식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 아래 AI 생성물이 인간이 작업한 것과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러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이미지 2.0과 구글 나노바나나 2는 현재 디자이너의 작업물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신진우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는 "기존 인간들이 해온 노동들이 AI로 대체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기술 전환이 이뤄질 때마다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 AI를 관리, 통제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 LG CNS, '구글 올해의 한국 파트너' 선정

AI·클라우드 기술력 등 인정 받아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드 2026'에서 '올해의 파트너' 한국 부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고객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 성과를 낸 기업에 수여된다. LG CNS는 AI·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 고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한국 대표 파트너로 선정됐다.

LG CNS는 2023년 서비스·판매 부문, 2024년 서비스 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이어가며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성과를 이어왔다.

LG CNS는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 이'와 '버텍스 AI'를 활용해 제조, 금

융, 유통, 통신,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아시아·태평양과 미주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단백질 구조 예측 등을 활용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솔루션 도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양사 협력은 2022년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AI 분야 협력과 글로벌 사업 확대 논의가 이어왔다. LG CNS는 구글 클라우드 최고 등급 파트너 자격도 유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삼성SDS,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맞손

AI·클라우드·보안 사업 강화

삼성SDS는 구글 클라우드와 'AI·클라우드·보안 분야'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현지 시간 2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6'에서 양사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금융 등 고보안·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구글 분산형 클라우드(GDC)를 활용해 고보안·규제 시장을 확대한다. GDC는 데이터센터와 에지 환경을 위한 완전 관리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이다. 규제 준수·데



(왼쪽부터)이호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 사업부장, 루스 선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이 23일(현지시간 2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파트너십 현장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SDS

이터 현지 처리·시스템 생존성·초저지연 등의 요건을 갖췄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과 삼성SDS의 클라우드의 기술 역량과 업종 전문성을 결합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사업도 강화한다. /조민선 기자 msjo@

# ‘코스피 6000시대’... 증권株 강세에 목표가도 잇단 상향

KRX 증권지수 올해 84.26% 상승 거래대금 40조원대 웃돌며 활황 활동계좌 1억430만개로 투자열기 신용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 경신 수수료 수익 기대에 실적개선 전망



여의도 증권가 전경.

‘강세장엔 증권주’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고공 행진할 때 증권사 실적에 치솟고 주가도 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말이다. 증시가 활황을 맞으면 투자자의 돈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리지(주식매매)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의 수익도 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피 ‘6천피’(코스피지수 6000선)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공식이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강세장을 맞아 증권주가 큰 폭으로 뛴박질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올해 들어 84.26% 상승하면서 주요 KRX 업종별 지수 중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같은 기간 189.94% 뛰었다.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65.65%)과 삼성증권(48.28%)도 45% 넘게 올랐다.

급등 배경은 국내 증시 호황이다. 중

동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31일 5052.46까지 추락했던 코스피는 반도체 호황을 등을 받관 삼아 장중 6500선까지 뛰어올랐다. 연일 최고치를 고쳐 쓰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채권 등 증권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3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7조 2000억원) 대비 31.6%, 직전 분기(31조 1000억원)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한국거래소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합산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올해 들어 계속 40조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1월 41조

9702억원, 2월 46조861억원, 3월 54조 1736억원, 이달 들어 지난 17일 기준 40조4887억원을 기록 중이다.

개미들은 앞다투어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30만 9647개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63만 5074개, 전주 말보다는 27만7334개 증가한 개수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자금인 신용융자도 34조8107원(22일 기준)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 증권사 수익도 늘어난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증권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여서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익원이다. 과거 증권사 수익의 20~30% 정도가 수수료 수입이었지만, 올해는 큰 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권사의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중동 전쟁이후에도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코스피 역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이런 점이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북돋울 것이라 분석이다.

실적 전망도 밝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증시 개편 정책, 개인·기업들의 가속화되는 증시로 자금 유입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일수록 이익 방어력이 높을 것이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기반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 매력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최선호주로는 키움증권, 차선호주로는 삼성증권을 제시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장미빛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권사들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 등 주요 5개사를 중심으로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에 보고서 낸 증권사 8곳 중 6곳이 목표가를 상향했으며, 지난달 최대 11만원의 목표가가 제시됐다. 삼성증권도 9곳 중 4곳이, NH투자증권은 10곳 중 7곳이 올렸으며 각각 최대 15만4000원, 4만4000원의 목표가가 제시됐다. 키움증권은 7곳 중 3곳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NH투자증권이 70만원을 제시했다. 한국금융투자에 대해서도 8곳 중 3곳이 목표가를 높이면서, SK증권이 최대치인 39만9000원으로 올렸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지만 정책, 실적, 주주환원이 모두 뒷받침되는 가운데 중장기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리레이팅 기대가 유효한 구간”이라며 대형사 중심의 상승을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키움증권을 선호주로 꼽았다.

윤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투자는 금융 계열사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꾸준한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키움증권은 국내 거래대금 점유율(M/S) 상위 증권사로 리테일 전반에서 시장 활황의 수혜를 누리 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방시혁 리스크’에 BTS 호재 문힌 하이브

하이브 주가 연초 대비 28.76% 하락 BTS 완전체 복귀에도 반등 실패 증권가 목표주가 잇단 하향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준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하이브 주가가 연초 대비 약 30% 가까이 급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과 월드투어라는 대형 호재에도,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주가를 짓누르면서다.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낮추며 보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

◆‘신뢰 붕괴’로 변진 오너리스크... 주가 ‘흔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가는 연초 대비 28.76% 하락했다. 최근 신고가 대비로는 낙폭이 더 크다. 지난 2월 13일 장중 40만5500원을 고점으로 최근 24만원대까지 밀리며 약 40% 급락했다.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수준으로, 단순한 조정을 넘어 ‘추세 훼손’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 달 흐름은 시장의 판단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이브는 1개월 기준 15.15%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에스엠(+3.92%), JYP엔터테인먼트(+2.11%), 와이지엔터테인먼트(-0.19%) 등 주요 엔터사들은 대체로 큰 하락세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동일한 K-엔터테인먼트 업종 내에서도 하이브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모습이다. 업종 공통 요인보다는 개별 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 급락의 중심에는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진 수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을 유도하고, 이후 상장 과정에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거래소와 하이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경영 공백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실제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는 즉각 하락 반응을 보이며 ‘이벤트 드리븐’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방 의장이 최근 약 70만주에

이어 16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기로 하면서 시장 해석은 더욱 엇갈리고 있다. 회사 측은 임직원 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 대응이나 여론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시혁 리스크 장기화 우려 ↑...BTS 효과마저 상쇄

문제는 이 같은 리스크가 하이브 사업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방시혁 의장은 최대주주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콘텐츠 제작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단순한 경영진을 넘어 핵심 IP 경쟁력의 축이라는 의미다. 추가 증여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배력 자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주가 할인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BTS 완전체 컴백과 월드투어, 글로벌 차트 성과 등 뚜렷한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빌보드 ‘글로벌 200’ 등 주요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 성과가 이어졌음에도 주가 흐름은 약세를 보였다. 호재가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압도한 셈이다.

증권가 역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IBK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 목표주가를 각각 4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과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달러쟁겨 돌아온 서학개미... ‘복귀계좌 1조’

RIA 첫 출시 29일만에 가입 16만개 이달 미국 주식 14억달러 순매도 전환 내달 말까지 옮기면 양도세 100% 감면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가운데 ‘RIA’ 경로를 따라 이동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잔고도 1조원을 돌파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RIA 누적 잔고는 1조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첫 출시 이후 29일 만이다. 계좌수도 15만9671개로 16만개에 달했다. 출시 첫날 누적 잔고는 519억원으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약 2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5월 31일까지 복귀 시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1인당 최대 해외주식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이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매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약 14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순매도했다.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서 월 기준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에는 2억3200만 달러(3424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월 50억299만달러, 2월 39억4905만달러, 3월 16억9150만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양도세 감면 혜택과

지 이뤄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전날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는 등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반면,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해 1월 28일 7000선을 돌파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달러 강세 시점에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복귀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 20일 기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총 1763억달러(260조원)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100%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하은 기자

# AI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선포 초개인화 구직 서비스에 130억 투입

##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20주년

고용24, 개인회원 1000만명 돌파  
직무 온톨로지 특허 등록 완료  
AI 전략팀 신설·노동시장 TF 가동  
이창수 원장 "지난 20년 디딤돌 삼아  
AI·데이터로 국민 적성·꿈 이룰 것"

국가 고용 인프라의 심장 역할을 해 온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운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와 임직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 디지털 고용 혁신 20년, '데이터'로 증명한 국가대표 플랫폼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년간 흠어져 있던 국가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한 차세대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고용24'는 최근 개인 회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술적 성과도 돋보적이다. 21.5억 건의 방대한 고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이직·전직 경로를 안내하는 '직무 온톨로지(Job Ontology)' 특허 등록을 완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 대한민국 10대 AI 선도기관'에 선정되는 등 공공 서비스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다. 또,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공헌대상 ESG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 ◆ 향후 20년 비전, AI 기반 '초개인화' 고용 서비스 가동

이날 선포된 미래 전략의 핵심은 'AI 기반의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혁신'이다. 구직자의 역량과 기업의 수요를 AI로 정밀하게 매칭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길잡이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원은 올해 AI 전략팀을 신설하고 노동시장 분석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약 130억원 예산을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구직자 맞춤형

생애경력관리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고도화하고, 기업 인재채용 및 착지원시스템 '펌케어(FirmCare)' 확대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고용 정책의 중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준 임직원과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난 20년의 눈부신 성취를 디딤돌 삼아, 다가올 20년은 AI와 데이터 기술로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꿈을 이어주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고용 표준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3.9GW 목표 서부발전, 전담조직·인력 확대

재생에너지사업단 '1단 2실 5개 부서'  
본사 전담인력 80명... 30명 증원  
'재생에너지건설부' 신설, 개편 핵심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서부발전은 기존 '1단 1실 4개 부서'였던 재생에너지사업단을 '1단 2실 5개 부서'로 확대하고, 본사 전담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8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본사와 사업소를 합친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 인력은 총 161명 체제로 가동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건설부'의 신설이다. 그동안 건설 인력이 신규 LNG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업무를 병행해왔던 구조에서 탈피, 재생에너지 전담 건설 부서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설비 안전 전담 인력도 보강해 건설 및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풍력발전 분야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풍력사업부를 '풍력사업실'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육상풍력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이는 사업 특성이 판이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입지별·설비별 특성에 최적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

서부발전은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사업개발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 배치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3.9기가와트(GW)까지 늘리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며 "서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9월 '햇빛원 태양광(60MW)' 준공과 12월 '군위 풍백 풍력(75MW)' 상업운전 개시 등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이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태안권역에는 1.4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포함해 총 2.2GW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공-IBK기업은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중소기업 감축실적 확보 도와

한국환경공단과 IBK기업은행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연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이에 양 기관은 민간금융연계를 통한 사업 실행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 공유 및 사업 추진 가능성 공동 검토 ▲정부지원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비금융 지원 ▲국제감축사업, 글로벌 탄소시장 관련 제도·정책동향 정보 교류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공단은 실행 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 정보 제공, 금융 조달까지 연계해 감축분 확보와 기업의 국제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투자지원 기업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자 공모 차수와 접수기간을 확대 개편했다. 1차 지원 신청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 바 있다. 2차 공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UPA, 中·日과 친환경에너지 공급망 협력

울산항, '친환경연료' 공급거점 육성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을 '친환경연료'의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해운분야의 탈탄소 흐름에 발맞춘 행보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일본 업체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및 '급유 수요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진행됐다.

중국에서는 주요 그린메탄을 생산업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울산항 내 친환경 에너지 저장 및 급유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생산·저장·공급으로 이어지는 그린메탄을 전주기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향후 실질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현지 주요 항만 국영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망도 공고히 했다. 우선 동북 3성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는 라오닝 항만그룹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의 울산항 유입을 위한 공급망 구축을 협의했다.

또 세계 1위 상해항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항만기업인 SIPG(S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와는, 양국 정부의 급유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 주요 항만 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

급과 급유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 해운시장은 화석연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다. 이에 양측은 항만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미래 항만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에서는 종합상사인 이토추(Itoc hu)를 대상으로 그린메탄을 저장 및 급유 수요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메탄올 물량을 추가로 유치하고, 울산항을 동북아 친환경 연료 저장 및 공급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울산항은 지난 2023년 7월 세계 최초 그린메탄을 급유 성공 이후 현재까지 총 17회의 메탄올 급유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 급유와 하역을 동시에 성공하며 액화천연가스 급유 상업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또 올해 2분기 중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급유 실증사업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울산항은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에 이르는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서 위상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에는 한·중·일 동북아 항만 국장 회의가 울산에서 예정돼 있다. 공사는 울산항의 국제 친환경 항만 협력 관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1일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한국국제터미널)에서 신규서비스 기항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 佛 선사 원양항로 유치

주 1회 8000TEU급 선박 광양항 기항  
년 10만TEU 신규 물동량 창출 전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신규 서비스는 프랑스 국적의 CMA CGM 선사의 'PEARL AS1 팬들럼 서비스'다.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시계추처럼 오가는 장거리 핵심 노선으로, 8000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급 선박이 매주 1회 광양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신규 서비스의 라스칼라호(LASCALA) 첫 기항에 맞춰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CMA CGM 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한국국제터미널 대표, 항만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감사인사와 기념패 등을 선정·선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그간 광양항 이용 화주들의 불편 사항인 정기선 항차 수 및 원양서비스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CMA CGM 아태지사(싱가포르)를 대상

으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기선 서비스 유치를 통해 항만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서비스 유치를 통해 연간 약 10만TEU의 신규 물동량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향후 광양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감이 곳곳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번 신규 서비스의 기착지 상세 정보는 ▲전남 광양 ▲(중국)청도, 상해, 닝보, 쑤저우 ▲(싱가포르)싱가포르 ▲(인도)나비세바, 문드라 ▲(파키스탄)카라치 ▲(스리랑카)콜롬보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이퐁 ▲(중국)샤먼, 난샤, 안티안 ▲(미국)로스앤젤레스 ▲전남 광양 순이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해운기업 CMA CGM이 핵심 거점으로 광양항을 선택했다는 것은, 광양항이 더 이상 지역의 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AI 선택 아닌 필수”... 교육부, 대학생 AI 기본교육과정 추진

교육부, 전공 상관없이 역량 교육 수도권 6개교 등 총 20개교 선정 2년간 매년 학교당 3억 이내 지원

덕성여자대학교와 세종대, 한국외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대학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교육부 전경.

거점국립대 9개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 10개교를 제외한 대학 가운데 20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수도권 선정 대학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세종대, 용인대, 한국외대 등 6개교다. 비수도권 선정 대학은

건국대(GLOCAL), 경운대, 국립경국대, 국립한밭대, 동국대(WISE),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송원대, 순천향대, 전주대, 창신대, 한라대 등 14개교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 등 총 20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최종 20개교를 확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개교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3개교를 예비선정했다. 선정된 20개교 가운데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확인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비선정 대학 가운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향후 2년간(1+1) 매년 학교당 3억원 이내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 중에는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

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비판적 사고 등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기초 교양 교과'와 인공지능을 비공학계열 전공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 학습자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자 역량 강화와 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타 대학과 공유해 대학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보편화하고, 지역 간 인공지능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대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심리상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계획' 도움센터 '친구랑' 5곳 지역 운영 멘토링·고위험군 상담 최대 2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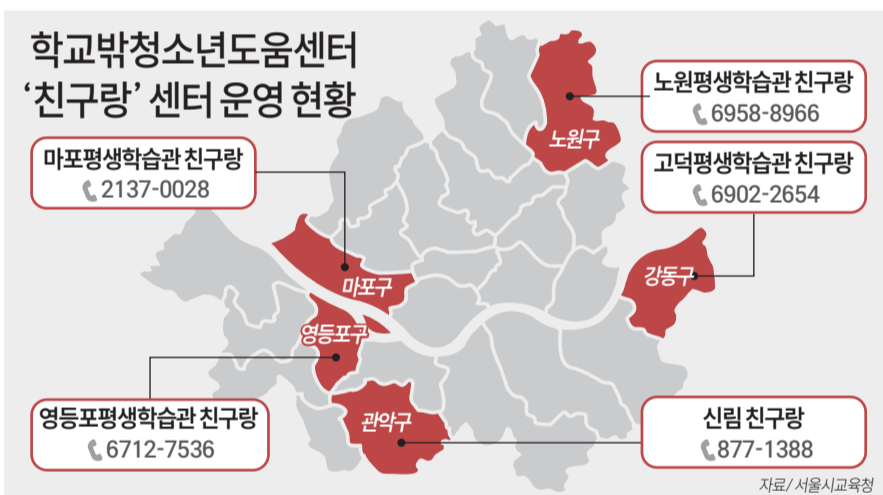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1대1 학습 멘토링과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교육참여활동비 지원을 이어가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운영 ▲1대1 학습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확대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5개 센터를 지역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자살 고위험군, 우울감, 장기 은둔 등 위기 유형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해



운영한다. 자살 예방 교육과 은둔형 외톨이 예방 교육 등 위기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습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 학습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1대1 학습 멘토링을 운영한다.

심리·정서 지원 역시 늘린다.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은 기존 12회에서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의 경우 최대 24

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교육참여활동비 지원도 이어간다. 초등학교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을 지원하며, 매월 6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급된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취약계층에 최대 5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

차상위계층 등 27일부터 1차 신청

서울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증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

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특례시 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자치권 확대 전환점 기대

고양시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입법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논의가 지연돼 왔으나,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비롯해 특례 부여 요청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이 꼽힌다. 기존에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법안 시행 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구리시, 갈매동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

구리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의 철도 운행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이 22일부로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구간이 늘어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해 철도 소음 피해가 주거지역 주민

들에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왔으며, 갈매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청이 반영돼 지정이 이뤄졌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설관리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nk4303@

# ‘화장품 넘어 웰니스까지’ … K-뷰티, 일본 MZ 신한류 정조준

**아모레·에이피알 일본 비중 확대  
토리든·몽클로스 오프라인 공략 강화  
라엘 펠테크 앞세워 현지 입지 다져  
올리브영 체험형 행사 생태계 확장**

일본이 K뷰티의 새 격전지가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 국내 대형 브랜드사가 탄탄한 실적으로 길을 닦자, 인디 브랜드와 웰니스 제품들이 가세해 일본 뷰티 시장에서 K뷰티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2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의 2025년 실적에서 K뷰티의 중심축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권역에서 524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1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 등 신규 브랜드를 지속 선보이며 브랜드 다변화에 속도를 냈다.

에이피알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은 약 80%인 1조225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본 매출 비중은 2024년 7%에서 2025년 12%로 확대됐다.



일본 긴자, 시부야 등에 위치한 로프트 매장에는 K뷰티 브랜드 ‘몽클로스’가 입점해 있다.



/몽클로스

인디 브랜드 역시 일본에서 약진하고 있다. 스킨케어 브랜드 토리든은 최근 3년간 일본에서 연평균 183%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토리든은 웰시아, 로프트, 돈키호테 등 일본 주요 드럭스토어 입점을 완료하며 현지 소비자를 정조준했다.

오프라인 구매 성향이 강한 일본 소비자 유형에 맞춰 도쿄 등 주요 거점에서 체험형 행사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로프트 요코하마점에서 진행한 팝업에는 지난해 10월 도쿄 팝업 대비 방문 고객 수가 약 295% 늘었다. 오는 4월 28

일에는 시부야에서 팝업을 열고 글로벌 SNS 틱톡에서 조회수 940만 회를 달성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MZ세대를 공략한다.

하우스 뷰티 브랜드 몽클로스도 일본 현지화 전략에 주력한다. 일본 최대 버라이어티숍 로프트의 200여 개 매장에서 오프라인 시장 접점을 늘렸다.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성분, 피부 효능에 중점을 둔 차세대 소재인 PDRN을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K-뷰티의 영향력은 화장품을 넘어

헬스케어로 확대되고 있다. 우먼 웰니스 브랜드 라엘 역시 일본 유명 이커머스 쿠팡재팬이 진행한 ‘메가와리’ 행사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으로 설계된 미오 이노시톨 앤 콜린은 8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일본 내 급성장하는 여성 건강 기술(펠테크)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이처럼 각 브랜드의 속도전에 더해, 국내 1위 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은 일본 현지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열

고 ‘K뷰티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올리브영은 오는 5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KCON 재팬 2026’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지 MZ세대가 한국의 뷰티 루틴과 노하우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형 페스티벌’로 꾸며진다.

올리브영은 글로벌 현지 인플루언서와 유통 관계자들을 잇는 비즈니스 가교 역할을 수행, 한국 유망 중소 브랜드들의 일본 수출길을 직접 연다는 계획이다. 개별 브랜드의 진출을 넘어, 플랫폼이 주도하는 ‘K뷰티 클러스터’가 일본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일본 화장품 시장은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보수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으면 향후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수입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024년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해당 규모는 약 1342억엔(약 1조2500억원)에 달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정식품, 직장인 응원 팝업 ‘성수 장터’ 연다

**노동절 앞두고 이색 체험 행사 기획  
베지밀 주막·약방 등 장터 콘셉트  
두유·스킨케어 체험 공간 마련**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이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에 위치한 관계사 오씨 사옥 앞에서 직장인을 위한 현대판 조선 저잣거리 콘셉트의 팝업스토어 ‘성수 장터’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수 장터’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업무에 지친 성수동 직장인에게 활력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새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저녁 새참’으로 나뉘어 하루 2회씩 총 4회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통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베지밀 주막 ▲성수 약방 ▲성수 빨래터 등 이색적인 콘셉트로 구성됐다. 입장 시 성수동 소재 기업의 사원증이나 명함을 제시하면 체험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엽전 3개가 제공되며, 일반 방문객들은 엽전 2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베지밀 주막’에서는 정식품의 인기 두유 제품을 활용한 이색 메뉴를 선보인

다. ‘베지밀 고단백 두유 초코’를 활용한 초코 코코아 두유라떼와 ‘베지밀 꼭꼭 씹히는 애플망고 두유’가 들어간 애플망고 두유콜라타 등 눈알콜 각테일 3종과 두유 막걸리 1종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베지밀 두유를 베이스로 한 스낵 3종과 오씨가 국내에 선보인 ‘페치 맥주’ 세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성수 약방’은 야외 활동이 많은 직장인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 체험 공간으로 마련된다. 소이베베, 수야무 등 오씨의 대표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빨래터를 콘셉트로 한 체험존 ‘성수 빨래터’와 모자



성수 장터 포스터.

/정식품

나 붓짐 등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도 운영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CJ온스타일

### 디즈니와 손잡고 여름 패션 마케팅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캠페인

CJ온스타일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함께 29일 개봉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모티프로 한 대형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커머스 플랫폼 중 유일하게 선보이는 캠페인으로 슬로건은 ‘올여름, 온스타일이 악마를 입다’다. CJ온스타일은 플랫폼 핵심 고객층인 30~40대 여성과 영화 팬덤 타깃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신원선 기자

## 하이트진로, 필리핀서 ‘진로 대중화’ 속도 나라셀라, 가성비 데일리 와인 ‘루트50’

복합 문화행사 참여해 접점 확대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라운드 인 더 필리핀(2026 ROUND in the Philippines)’에 참여하며 동남아 시장 내 영타겟 공략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 라운드 인 더 필리핀’은 한국과 아세안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콘서트, 전시, 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 페스티벌이다. 하이트진로는 ‘진로(JINRO)의 대중화’ 전략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진로의 ‘트렌디한 K-주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에서 K-팝과 연계된 글로벌 팬덤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고, 현지 문화 및

로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필리핀 현지 유통사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 라운드 인 더 필리핀’ 행사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아라네타 콜로세움에서 열린 콘서트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총 17개 팀이 참여해 약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인근 게이트웨이 몰 일대에서는 4월 17일부터 3일간 전시와 체험형 부스를 운영,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공연장 내부에는 시음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참이슬과 과일 리큐르 5종(청포도·자몽·복숭아·딸기·레몬에이슬)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여행 감성 담은 라이프스타일 제품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데일리 와인 ‘루트50(Route 50·사진)’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루트50’은 나라셀라가 지난 3월 선보인 1만원 초반대 와인 ‘V9’에 이은 두 번째 라인업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안정적인 품질을 기반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를 본격화한다.

제품명은 미국 동부 대서양부터 서부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상징적인 횡단 도로에서 영감을 받았다. 대도시의 화려함부터, 고요한 사막, 웅장한 로키산맥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모티브로 길 위에서 마주하는 다채로운 풍경과 감성을 한 병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루트 50 와인.

특히 ‘어디든, 루트 50과 함께라면 여행이 된다’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류를 넘어 일상 속 감성적인 경험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와인을 지향한다. 집에서의 휴식 시간에도 낯선 여행지에 도착한 듯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데일리 와인으로 기획됐다.

풍미는 자두와 코코아 파우더, 감초 아로마가 조화를 이루며, 다크프루트와 블랙체리의 과실 풍미에 은은한 오크 누앙스가 더해진다. 부드러운 바디감과 실키한 탄닌, 깔끔한 피니시가 특징으로, 와인 초보자부터 애호가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쇼핑

### 잠실 ‘스타워즈 데이’ 사전예약 본격 시작

내달 롯데월드타워 광장서 진행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ON)이 30일까지 ‘스타워즈(Star Wars) 데이 2026 in 잠실’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이번 스타워즈 데이는 오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의 5월 기대작인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테마를 활용해 스타워즈 아레나를 조성했다.

롯데온은 보다 쾌적한 스타워즈 데이 경험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를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 외형·수익 다 잡았다... ADC·비만치료제 신약개발 '속도'

## 삼성에피스홀딩스 1분기 실적

매출 전년비 14% 올라 4549억  
직전 분기비 영업이익 393.7% 급증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상업화 성과

지난해 11월 출범해 신약개발에 중점을 두며 글로벌 바이오 영토 확장에 나선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외형 성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뤄냈다.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비만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6년 1분기 실적을 23일 공시했다.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6년 1분기 매출 4549억원, 영업이익 1440억원, 당기순이익 13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6%, 영업이익은 12.6%, 당기순이익은 21.8% 증가했다. 앞서 올해 1월 2026년 매출 목표표 제시한 전년 대비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



삼성에피스홀딩스 전경

/삼성에피스홀딩스

뤘다.

또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393.7% 급증하면서 수익성은 가파르게 개선됐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상업화 성과가 뒷받침됐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SB4)'가 유럽 출시 10년에 접어들면서 견고한 매출을 거두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들어 유럽에서 총

4종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 제품별 판매 전략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제품도 지속 출시한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B15'는 올해 4월 유럽에서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인 프롤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SB16'으로도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미국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

체(PBM)인 CVS케어마크와 'SB16' 자체 상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빅파마 산도스와 엔티비오 바이오시밀러 'SB36'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조기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신약 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첫 번째 신약개발 후보인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파이프라인 'SBE303' 연구 데이터도 공개했다.

SBE303은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네티-4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항암제다. 국내 기업 인투셀, 중국 프론티어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발된 이 물질은 현재 미국과 한국 등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본격화했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성 불응형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영역은 항암제를 넘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도 확장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회사 에피스빅스랩, 국내 바이오 벤처 지투자바이오 등과 함께 장기 약효 지속형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인 약물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급성장하는 비만치료제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인다.

한편,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539억원, 영업이익 905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12월 연결기준 매출 2517억원, 영업손실 636억원 이후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앞서 올해 1월 제시한 매출 성장률 10% 이상 가이던스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통합 평가 플랫폼 첫선

美AACR서 면역항암 평가기술도 공개  
임상 전 독성 리스크 사전 파악 가능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을 위한 오가노이드 기반 통합 평가 플랫폼을 처음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선보인 핵심 기술은 10개 이상 암종 유래 종양 오가노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후보 타겟의 발현과 약물 반응성, 정상 조직 독성 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안구(Eye)·피부(Skin) 등 정상 조직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조직 특이적 독성 예측 기술은 임상 진입 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독성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학회에서 면역 억제 세포인 MDSC(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를 포함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독일 법인인 '람다바이오로지스(Lambda Biologics)'가 AACR 2026 현장에 독립 부스를 설치하고 ADC 평가 플랫폼 출시를 공식 알렸다.

실제 인체 종양 환경을 구현한 오가노이드 기반 면역항암제 평가 기술도 함께 공개했다.

이 기술은 종양 주변 면역세포의 동태와 작용을 직접 확인해 기존 2D 세포 모델로는 어려웠던 인체 면역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재현한다. 특히 특정 약물에 의해 MDSC의 종양 침투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면역항암제의 효능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

운 방법론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과의 합작법인인 포도 테라퓨틱스(Podo Therapeutics)는 동아애틀라스가 개발한 ADC 약물의 효능 평가 결과를 이번 학회에서 공개했다. 환자유래 오가노이드(PDO)와 면역세포 공배양 플랫폼을 활용해 ADC 단독 효과뿐 아니라 표적 치료제 및 면역 치료제와의 병용 효과까지 다층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셀트리온, ADC 신약 모두 환자 투약 돌입

지난해 美 FDA 임상 승인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3종이 모두 환자 투약 단계로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환자 투약이 진행 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CT-P70, CT-P71, CT-P73 등 3종으로 해당 물질들은 모두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이후 임상시험 개시 절차를 거쳐 CT-P70과 CT-P71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CT-P73은 가장 최근인 올해 1분기부터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이들 ADC 신약 후보물질은 전임상 단계에서 차별화된 기전과 우수한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전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임상 1상에서 용량별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환자 투약을 시작한 ADC 신약 후보

/이세경 기자

물질 외에도 다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인 CT-P72 역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T-P72는 현재 임상시험 기관을 통해 환자 모집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내달 첫 환자 투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각 후보물질별 적응증을 살펴보면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식도암 등 ▲CT-P71은 요로상피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CT-P73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등 ▲CT-P72는 방광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등을 타겟으로 개발 중이다.

4종의 신약 후보물질 모두 미중국의료 수요가 높은 항암 영역을 적응증으로 하는 만큼 빠른 상업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기본 전략으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CT-P70은 지난해 12월, CT-P71은 이달 각각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 HK이노엔, 수출입銀과 취약계층 돕는다

새싹보리 포함 총 5억 규모 꾸러미

HK이노엔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재원을 조성하는 매칭기부형으로 진행된다. HK이노엔은 자사 음료 제품 '새싹보리'를 3억원 상당(약 12만 병)으로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원을 기부해 총 5억원 수준의 꾸러미를 전달한다.

HK이노엔 김기호 전략지원실 전무는 "건강한 지역 사회는 HK이노엔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건강한 지역 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그냥드림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신유근 부행장(왼쪽부터), HK이노엔 김기호 전무, 보건복지부 은성호 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K이노엔

한국수출입은행 신유근 부행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한국콜마 "두피도 자외선 차단하세요"

'스칼프 선에센스' 개발  
모발 뭉침 없는 가벼운 사용감

한국콜마는 두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스칼프 선에센스'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칼프 선에센스는 SPF 50+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하는 두피 전용 선풍제 제품이다. 얼굴에 에센스를 바르듯이 두피에 바르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

특히 이번 신 제형에는 수용성·친유성 자외선 차단 성분을 최적 비율로 배합하는 융합 기술이 집약됐다. 모발 뭉

침 없이 수분 에센스를 바른 듯 가벼운 사용감을 갖췄다. 자외선 차단제 제형 특성상 자외선 필터나 오일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두피에 발랐을 때 모발이 뭉친다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는 자외선 차단에 두피 냉각 등의 효과를 더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스칼프 선미스트, 스칼프 선스프레이, 두피 전용 클렌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피가 태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또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피 염증이 발생하고 모낭이 손상되면 서 탈모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청하 기자

#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네비딱한 천재

#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LG, '슈퍼스타트 데이'로 청년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41개 스타트업 핵심 기술 발표·전시  
미래사업 ABC 분야 혁신기술도 선봬  
1:1 비즈니스 미팅존, 120건 미팅 성사

LG가 대학가 '슈퍼 루키'를 육성해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LG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인 '슈퍼스타트 데이 2026'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광모(썬) LG 대표가 LG의 미래 사업으로 점찍은 ABC(AI, 바이오, 클린테크)는 물론 로봇, 우주산업,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슈퍼스타트 데이'는 지난 2018년 LG의 R&D 혁신 기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스타트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슈퍼스타트 데이에선 다펀테크



'슈퍼스타트 데이 2026' 루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창업팀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

문 투자·육성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발굴한 41개 스타트업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발표·전시했다. 특히 올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대거 늘었다. ▲지난해 CES 혁신상과 APEC Best Award를 수상한 '퀘스타'는 사람의 손동작을 고정밀 피지컬 데이터로 전환해, 로봇이 정교한 조

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모티글로브'를 선보였다. ▲서울대 기계공학·전기정보공학 박사들이 창업한 '로맨티로보틱스'는 종이·박스·테이프 같은 비정형 물체의 변형성을 로봇이 이해하고 정확한 조작을 구현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구광모(썬) LG 대표가 미래 사업으로

점찍은 ABC 분야의 다양한 혁신 기술도 발표됐다. ▲LG전자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분사한 '신선고'는 소형 AI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접이식 진공단열재(FVI) 및 모듈형 냉동창고 기술 기반 고효율 쿨링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된 '랩인큐브'는 '2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MOF(금속유기골격체)와 같은 탄소저감 소재를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기에 적용해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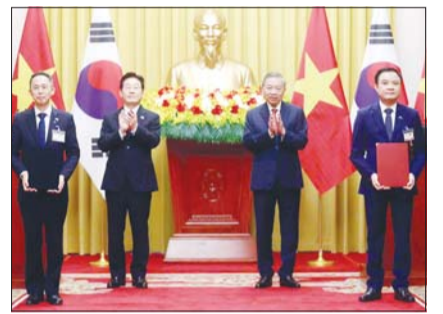
아울러 LG는 각 스타트업이 LG 계열 사·기관·투자자와 실질적 협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미팅존을 운영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약 120건에 달하는 투자·협력 미팅이 성사됐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SC제일은행-주금공,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SC제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왼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 수출입은행, 베트남 원전 금융협력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베트남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4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 첫번째)과 레 응옥 손 PVN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 동국제약 '인사돌', 국가산업대상 수상

동국제약은 인사돌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 수상식에서 잇몸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인사돌은 국내 잇몸약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품 혁신, 공익 캠페인 운영, 그리고 글로벌 인종 성과 등 다양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국제약



## 애경산업, 지구의 날 '애탄다' 캠페인

애경산업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애탄다(애경산업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경의선숲길 일대에서 걷기와 쓰레기 수거를 결합한 환경정화 활동 플로깅을 실시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 /애경산업

## 부음

▲박정자씨 별세, 이동근(아이티센글로벌 부사장)씨 모친상 = 22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안성 유포피아 추모관. 031-219-6654

## 소진공, '4차산업 경영'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창조경영' 과기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8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차 산업 경영'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소진공은 민간 플랫폼 및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의 온

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디지털 기술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영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50대 이상 및 1인 사업장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경영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이어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온 공단의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SK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으로 고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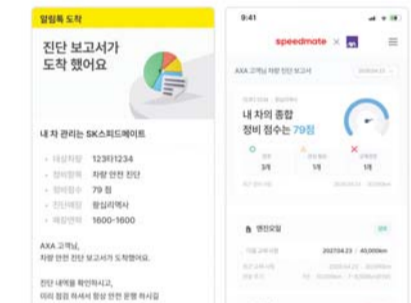
AXA손해보험 가입 고객 대상  
자동차 예방정비·안전점검 진행

SK네트웍스의 자동차 관리 서비스 회사 SK스피드메이트가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예방정비 및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SK스피드메이트는 AXA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방정비·안전점검 캠페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AXA손해보험 앱을 통해 안전점검을 신청하고 스피드메이트 매장에 방문해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에어컨 필터 총 5개 주요 항목을 점검받으면 진단 결과를 모바일 리포트로 제공받는 서비스다.

AXA손해보험과 협력해 전국 570여 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이상 여부를 통지하는 기존 차량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차량 안전에 직결되는 진단 결과 및 이에 근거한 종합 정비 점수를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별 차량 이용 패턴에 따른 예상 정비 시점 알림 등의 기능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량 컨디션



SK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차량 예방정비·안전점검 모바일 리포트 예시. /SK네트웍스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정비 서비스는 차량 고장과 사고 이후 처리에 집중했다면,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차량 점검 결과에 기반해 차량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 일정을 가이드하는 의미를 지닌다.

SK스피드메이트는 차량 예방정비·안전점검 캠페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AXA손해보험으로부터의 문자 수신을 동의한 고객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엔진오일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단순 점검을 넘어 데이터 기반 차량 관리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중진공, 상반기 정규직·인턴 102명 채용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접수  
최종 합격자, 7월 중 입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정규직 및 청년인턴 102명을 새로 채용한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은 행정 42명, 기술 18명 등 총 60명 규모다. 이 중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 대상자 12명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5명은 별도의 절차로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24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지식평가) ▲1차 및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입사한다. /김승호 기자

## 아모레퍼시픽, '설화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젊은 창작자와 전통문화 재해석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학생 참여 창작 프로그램 '설화프로젝트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설화프로젝트'는 젊은 창작자와 협업해 한국 전통 문화를 동시대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주제는 한국 전통 공예 예술 '탈춤'이다. 탈춤은 춤과 음악, 탈, 서사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예술이다. 해학과 풍자, 자유로운 표현을 특징으로 갖춰 현대 방식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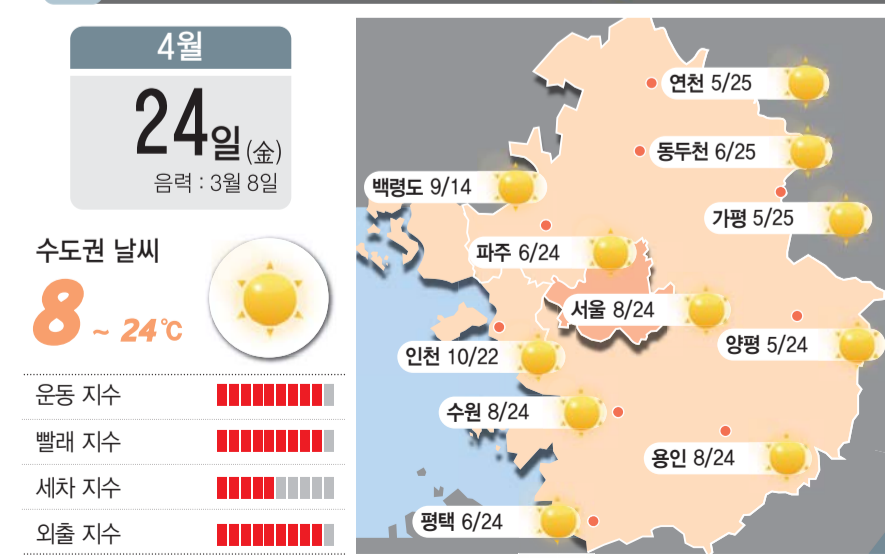
실제로 참가자들은 퍼포먼스, 영상,

텍스타일, 공예, 공간 연출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물을 선보이게 된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단위 지원이 가능하다. 총 16명을 선발해 4인 1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선발된 참가자들은 약 3개월간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작품을 기획·제작하게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제작비와 활동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수팀에는 별도의 시상이 이뤄진다. 최종 결과물은 오는 8월 설화수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관계자는 "젊은 창작자들의 시선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오늘의 날씨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구)아카데미극장

#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4월 24일 부터  
매주 금요일  
김상진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4월 28일 부터  
매주 화요일  
윤항기

1시30분 이전 입장객 무료입장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김상희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4월 30일부터  
매주 목요일  
차승민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도균

대전역 연가  
배호 가요제  
대상



4월 29일 부터  
매주 수요일  
이호 / 이명주

마술 쇼



4월 25일 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웃음콘서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 ‘재기’가 필요한 재기중소기업개발원



김승호의  
시선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에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다. 죽도연수원으로 불린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곳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폐업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재도전 캠프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재도전 힐링캠프’,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등의 과정을 거쳐간 이들은 최근까지 34기에 걸쳐 500명이 훌쩍 넘는다. 50명 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는 죽도는 재도전의 성지가 됐다.

죽도연수원은 한 기업인 개인의 원맨쇼로 시작했다. 이 기업인은 죽도의 폐교를 사들여 연수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무료 캠프에 참가할 이들과 강연자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15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교육 과정도 독특하다. 참석자들은 캠프 기간 내내 연수원 뒷편의 야산에 있는 텐트에서 생활한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체조를 하고 100배 절과 명상, 걷기 등을 반복한다. 하루 세끼 중 저녁은 배고픔

을 체험하기 위해 최소한의 먹거리만 제공한다. 수료 직전에는 맨발로 뜨거운 불위를 걷는 경험도 한다. 과정 중엔 임종 체험도 있다. 술과 담배, 커피, 전화기 사용은 금물이다.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며 만든 과정들이다.

그런데 죽도연수원이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전후해 3년 가량 문을 닫았다 다시 연 이후 캠프 참가자들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재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5회차 과정은 정원 25명 중 절반 밖에 인원을 채우질 못했다. 그것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의 도움을 받은 결과다.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뤘던 죽도였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민간기관 중 처음으로 2011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으로부터 공익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기도 했다. 중기청은 연수원이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캠프에 강연료를 일부 지원했었다.

중기부는 또 재기 관련 정책을 위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과장급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전부였다. 이후 중기부는 ‘재도전’ 관련 조직을 없앴다. 지금은 일부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이 하고 있을 뿐이다.

재도전 컨트롤타워도 없는 현실에서 재도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리는 만무하다. 현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일부에 ‘윈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소상공인에 국한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재도전응원본부’를 꾸린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이벤트였다.

모든 중소기업 정책이 창업에 집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 사이에 재도전이 있다. ‘모두의 창업’은 결국 ‘모두의 재기’와도 같다. 다산다사형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선 더욱 그렇다.

혹자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교육 방식을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택은 자유다.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진심어린 관심을 바란다.

/bada@

#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계산



이지수첩  
유혜운  
(산업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사업(CPSP)은 지금 시점에서 수주 가능성만큼이나 계약 조건과 국익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업이다. 최종 결론이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독일의 기류 변화다. 한국보다 앞서 이 사업에 공을 들여 온 독일은 최근 입찰 의향 단계에서부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핵심 조건 중 하나였던 폭스바겐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점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캐나다가 폭스바겐 공장 건설을 요구

했고, 이런 흐름이 한국에 대한 현대기아차 공장 설립 등 추가 요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작 폭스바겐이 선을 그은 것은 그만큼 캐나다 측 요구 수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 기술 이전과 패키지형 인프라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자동차·항공기 MRO 공장, 수소에너지 시설까지 맞춰주는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잠수함 관련 기술의 전면 이전 요구는 국가 전략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술 이전은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더구나 이전된 기술이 제3국으로 무단 이전되거나 재판매로 이어질 가능성

까지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각서와 협약서를 써도 한계는 분명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면, 기술 이전의 범위와 수준, 통제 장치와 안전장치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기업 부담은 가볍지 않다. 정부의 두려움 속에 사업을 따냈더라도 훗날 손실이 현실화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기업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가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은 ‘수주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단계다. 계산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dhaledhale@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 (음 3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하는 일마다 여의 하니 천금을 얻을 것입니다. 60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심이 좋습니다. 72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84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49년생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61년생 건강운이 흥합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세요. 73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5년생 주택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이吉日입니다.



50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62년생 귀하를 도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74년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86년생 남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세요.



51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63년생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재물이 쌓입니다. 75년생 소원을 풀 수 있습니다. 87년생 시험이나 취직에 합격운이 있습니다.



52년생 남쪽은 좋지 않으니 여행지 선택을 잘하세요.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6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53년생 근신하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9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4년생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세요. 66년생 저녁식사에 음식을 주의하세요. 78년생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득남할 것입니다. 90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55년생 뒤로 재빠르게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7년생 과속하면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79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91년생 상처가 낫을 수 있습니다.



56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8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80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2년생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57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69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81년생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93년생 안에서 찾으려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58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0년생 기다릴 줄 알아야 길이 열립니다. 82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94년생 귀인의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59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7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83년생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 나를 위한 요리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결승전은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시청자의 마음을 건드린 것은 결승전의 주제였다. ‘오직 자기를 위한 요리’를 만드는 것. 우승을 차지한 요리사는 뜻밖의 고백을 했다. 평생 수많은 손님을 위해 요리해 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요리사와 비슷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심하다.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 필자는 사주를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해 보는 것이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사주가 개인의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기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오래된 지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주가 삶의 흐름을 돌아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달의 목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사주를 살펴보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만든다.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 왔는지, 어떤 시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삶은 선택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니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6	7 3	
		8	5	
8	1			2
4 6				
2				6
				3 9
5			3	2
	9	1		
6 4		7 2		8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고, 새로운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8 8	6 2 2	1 7 9
2 9 7	8 1 5	6 2 8
1 2 6	8 9 7	8 2 5
6 8 2	7 2 9	5 1 8
9 7 2	1 5 8	8 6 2
8 5 1	2 6 8	2 9 7
7 6 9	5 8 1	7 8 2
7 1 9	2 8 2	9 8 6
8 2 8	9 7 6	2 9 1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0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프로방스 '원조' 로제... 분위기로? 맛으로! 마신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2

벚꽃 흩날리는 봄날에 어울릴 와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다들 고민없이 외칠 것이다. 로제 와인이라고.

중급자용으로 질문을 바꿔본다. 따뜻하게 부친 전도 좀 나오고, 삼겹살에 칼칼하게 무친 겉절이까지 내놓은 한식 한상에 어울릴 와인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와인 좀 마셔본 이라면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만능템' 로제 와인을 떠올릴 것이다.

프랑스에선 와인 소비에서 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그 비중이 10%까지 늘었다. 한국 시장에서도 로제 와인이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로제 '원조집' 프랑스 프로방스 와인협회(CIVP)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에릭 파스토리노 CIVP 대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로방스는 포도밭에서 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로제와인 중심으로 바라본다"며 "프로방스



①도넨 드 라 가르노드 르 퀴르 2024, ②샤토 데스클랑 위스퍼링 엔젤 2024, ③샤토 미누티 엠 로제 2024, ④도넨 오프, 바이 오프 로제 2024, ⑤라 수르스 가브리엘 2023.

로제는 로제 와인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남부에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프로방스는 와인 양조 초창기부터 로제 와인을 만들었다.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청량감 있고 시원한 와인을 마시는 지역적 특성까지 잘 맞아떨어졌다.

지금은 개인생산자는 물론 협동조합과 네고시앙 형태까지 생산자만 600곳에

달한다. 지난 2024년 기준 프로방스 와인의 89%가 로제 와인이다.

브리스 에마르 최고경영자(CEO)는 "프로방스는 남쪽은 지중해, 북쪽은 산맥과 맞닿아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테루아에서 그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로제 와인을 생산한다"며 "1970년대 원산지통제명칭(AOP)으로 승격되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뤄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



최근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프로방스 와인협회(CIVP) (오른쪽부터) 에릭 파스토리노 대표이사, 캐롤 갱샤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CMO), 브리스 에마르 최고경영자(CEO). /안상미 기자

는 로제 와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로제와인은 적포도가 들어가 색이 붉은 빛을 낸다. 그런데 양조할 때는 화이트 와인을 만들듯이 빠르게 압착해 만들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말은 간단인데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러러한 색을 내면서 복합적인 아로마와 질감을 뽑아내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에마르는 "포도선별부터 야간 수확, 정밀한 온도 관리, 저온 침용과 블렌딩

의 노하우까지 프로방스는 로제 와인에 특화된 양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섬세한 표현을 그대로 살려내 전 세계 로제와인의 교과서"라고 덧붙였다.

로제 와인이 우리네 식탁에서는 그냥 굽거나 양념한 고기는 물론 잘 익은 김치까지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니 그야말로 '만능'이다. 한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점도 프로방스 로제와인과 잘 어울리는 비결 중 하나다. 프로방스 음식에서도 마늘이 많이 쓰인다.

'도넨 드 라 가르노드 르 퀴르 2024'는 레드 와인 품종인 그르나슈와 생스로 만들었다. 화이트 와인에 가까운 색이지만 붉은 과실의 아로마를 품고 있어 다진 마늘이랑 참기름 정도만 넣고 무친 나물에도 술술 넘어갈 와인이다.

'샤토 데스클랑 위스퍼링 엔젤 2024'는 프로방스의 화이트 와인 품종인 롤이 들어가 다른 로제보다 청량감이 더 있다. 짭짤한 미네랄감도 잘 느껴져 새우볶음 넣은 조개탕의 맛을 한층 살려준다.

'샤토 미누티 엠 로제 2024'는 깔끔한 뒷맛으로 표고버섯전예, '도넨 오프, 바이 오프 로제 2024'는 시라 품종이 더해진 풍만함으로 구운 돼지고기와 잘 어울렸다.



/smahni@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돌아온 다마고치... 롯데백 반다이남코 팝업

팬시 페스타 열어... 키덜트족 공략 다마고치 신제품, 한정품 등 확보

롯데백화점이 5월 6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반다이남코 팬시 페스타'를 열고 키덜트족 공략에 나선다. 5월 가정의 달 시즌을 맞아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IP 콘텐츠 팝업을 개최해 팬슈머(Fansumer) 소비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반다이남코'는 '일본의 디즈니'로 불릴 만큼 방대한 캐릭터 IP를 보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다마고치'와 '가사콘(뽑숯도이)' 등의 키덜트 게임 기기를 비롯해 '드래곤볼', '디지몬', '건

담' 등 전 세대를 관통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폭넓은 팬덤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번 팝업은 유통 채널 전반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다마고치'를 공식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마고치는 가상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휴대용 게임 기기로, 최근 레트로 트렌드의 부상과 함께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재점화되고 있다.

먼저 다마고치의 재유행을 주도한 신제품 '다마고치 파라다이스'의 물량을 대량 확보해 선보인다. 기기 간 연결을 통해 결혼, 싸움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이템을 교환하는 '통신'이 가능해, 친구·가족과 함께 다마고치를



반다이남코 팬시 페스타에서 고객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즐길 수 있어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한정판 콜라보 '나노 다마고치'를 최초 공개한다.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작은 크기의 다마고치이며, 키링 줄이 달려 있어 소지품을 꾸밀 수 있는 악세서리 아이템으로 마니아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영화 '군체' 속으로... 오싹한 몰입형 공연 등장

롯데컬처웍스 '인사이드 더 플레이' 연상호 영화 '군체' 세계관 현실화 관객 직접 엔딩 결정... 재미 극대화

문화를 선도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 롯데컬처웍스가 한층 새로워진 몰입·체험형 공연 브랜드 '인사이드 더 플레이'를 선보인다.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스크린 밖으로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 브랜드다. 브랜드명에 담긴 의미처럼 관객은 공연 속에 완전히 몰입하여 무대 위 배우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인사이드 더 플레이' 테마는 제79회 칸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작이자 5월 2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군체'(감독 연상호)와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영화와 공연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이번 시도는 칸이 인정한 독보적인 연출력에 롯데컬처웍스만의 공간 기획력이 더해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적·심리적 압박감과 스릴을 선사한다. 관객은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제 속으로 던져지는 참여형 경험을 통해 전율에 가까운 몰입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정해진 동



인사이드 더 플레이 '군체'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관객 개인의 선택과 움직임이 결말을 만들어내는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오직 '인사이드 더 플레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들은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객이 직접 스토리의 엔딩을 결정짓는 이머시브 공연 특유의 재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21일 롯데시네마 신대방에서 개막하는 '인사이드 더 플레이 : 군체'는 4월 24일 17시부터 티켓링크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 및 롯데시네마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Live사업부장은 "관객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완벽한 이머시브 공연을 구축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라며 "영화 '군체'와 함께하는 '인사이드 더 플레이'는 관객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스릴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 카카오페이지 "인생만화 찾아드려요"

일본만화 원작 소개 이벤트 확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애니메이션 방영작을 중심으로 일본 만화 프로모션을 확대하며 카카오페이지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일본 만화 원작을 모아 소개하는 '인생만화 찾아드림' 2차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2분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중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악마에 입문했습니다! 이루마 군',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해 할인과 무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진행된 1차 이벤트는 흥행 성과

를 기록했다. '악마에 입문했습니다! 이루마 군'은 이벤트 기간 열람자 수와 매출 모두 일본 만화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며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후속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일본 만화 라인업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등 대표 작품을 비롯해 액션과 로맨스,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만화를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러, 내달 독일행 카자흐 원유 차단...카자흐 "러, 수용 능력 부족 통보" /사진 뉴스시  
▲日정부, 韓 MBK의 日마키노 인수 중단 권고... "안보 우려"

▲"기름띠, 우주에서도 보인다"...호르무즈 유조선 피격 '환경파괴' 논란  
▲트럼프 "내 요구에 이란, 여성 8명 처형 취소"...이란 "가짜뉴스"

▲호르무즈 선박 하루 130척→1척...세계 경제 압박 극대화  
▲獨, '美 의존도 탈피-유럽 자강' 첫 군사전략 발표



K-뷰티  
일본 MZ  
신한류 정조준  
너



Life

삼성에피스홀딩스  
외형·수익  
다 잡았다  
L2



# 공궐의 결 닮은 풍경... 전통과 현대 교차하는 '중용의 미학'

## 아파트의 미학(美學)

### 수원성 중흥S-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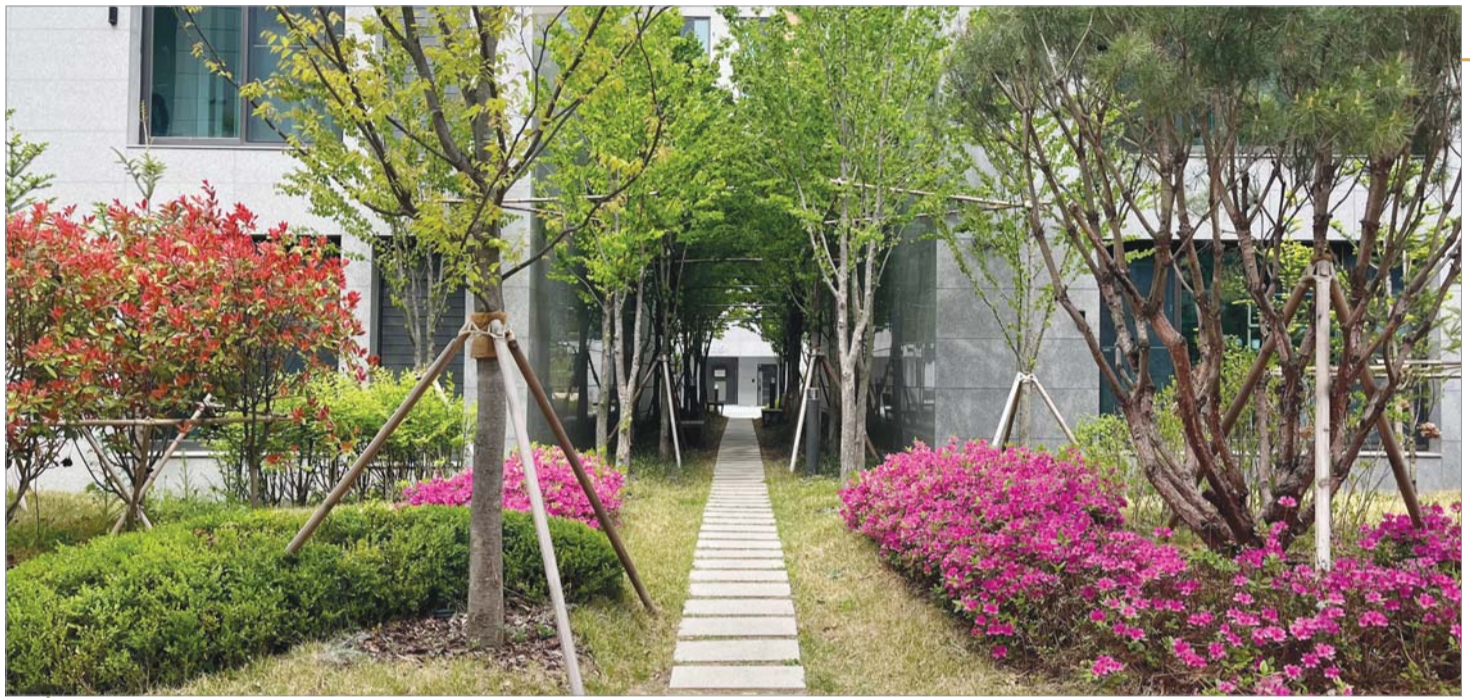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성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수원시 지동 115-10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115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 이름에서 드러나듯 직선거리 약 500m 거리에 수원화성이 자리한다. 화성행궁과 행리단길이 인접해 있으며 성곽 둘레길과 카페거리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천 산책로와 팔달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약 2km 거리에 1호선-수인분당선-KTX가 지나가는 수원역이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등 추가 교통망 확충도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 지동 초등학교가 보이고 동성중·수원고·수원여고 등이 가까이 학군도 양호하다.

수원화성 아래 펼쳐진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대단지 규모지만 화려함보다 절제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건축과 조경 곳곳에 담장 너머 공궐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높낮이가 다양한 동과 수목 조경이 시선을 편안하게 맞춰준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소박하지만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절제와 균형 속에서 중용의 미학이 엿보인다.

주출입구에서부터 단지의 성격이 드러난다. 낮게 펼쳐진 게이트 위쪽은 한옥 지붕을 연상시킨다. 정면에서 보면 기와 단면을 엮은 듯한 실루엣이 강조된다. 목재 질감의 기둥과 짙은 색상의 프레임이 어우러지며 전



고즈넉하고 예스러운 정원 분위기를 살린 단지 내 산책로.

수원화성 인접한 1154가구 대단지 녹지공간, 교통 갖춘 완성형 입지

공궐의 아름다움 담은 조경 연출 한옥 지붕 연상시키는 주출입구 목재 결 살린 마감, 한옥 기둥 등 전통문양 변주한 디테일 곳곳에

부드러운 곡선 강조한 휴식공간 꽃·수목 어우러진 석가산 풍경 석재데크로 표현한 정통 정원도

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회색 석재와 황토빛 마감, 주변 소나무까지 단지 이름 '수원성'에 걸맞은 상징성을 갖췄다.

단지 내부 건축에서도 전통적 요소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동 입구는 회색 석재로 단정하게 틀을 잡은 구조 안에 짙은 갈색 패널과 기둥을 덧댄 형태다. 목재의 결을 살린 마감도 눈에 띈다. 갈색 프레임은 한옥 기둥이나 처마를 연상시킨다. 테라스세대, 복층형세대, 별도 출입구를 둔 저층부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섞여 있어 마치 공궐 앞에 마을을 이룬 듯한 풍경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도 전통의 미학을 녹여냈다. 실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클래시안 센터' 입구상부에는 잔잔하게 번지는 물결무늬가 반복된다. 구름이 흘러가는 듯한 곡선 패턴으로, 병풍이나 단청에서 보이던 문양을 닮았다. 눈에 띄는 장식은 최소화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전통 문양을 변주한 디테일이 보인다. 높이보다 깊이, 장식보다 조화를 택한 설계가 단지 전반에 부드러운 인상을 더한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촘촘히 배치돼 있다. 원형 지붕 아래 마련된 소규모 쉼터는 테이블과 의자도 둥글게 디자인해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했다. 목재 데크와 석재기둥이 절제된 톤으로 사용되며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준다. 실내

공간에는 유리창으로 바깥 조경이 그대로 스며 들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든다.

단지 중앙부의 석가산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핵심 조경이다. 회색 암석과 알록달록한 꽃, 짙은 녹색 수목이 어우러져 계절감을 드러낸다. 바닥 포장도 눈에 띈다. 반듯한 아스팔트 대신 불규칙한 석재 패턴을 적용해 예스러운 정원 분위기를 살린다. 단지 전반의 은은한 조경과 맞물려 고풍스러움을 더한다.

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는 마치 숨겨진 길처럼 길게 뻗어 있다. 일정 간격으로 디딤석이 놓여 있고 키를 낮춘 수목과 화단이 이어진다. 외부와는 은근히 차단된 채 좁은 길 안쪽으로 또 다른 풍경이 연출된다. 동화속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준다.

단지 내 놀이시설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형 놀이 공간'을 구현한다. 숲놀이터는 데크 길을 따라 이어지는 동선이 특징이다. 숲속을 탐험하듯 이동하면 높이 솟은 포레스트 타워 꼭대기에 닿아 바람을 느낄 수 있다.

큐브 놀이터는 바닥과 시설 전반에 다양한 색과 패턴을 입혀 공간 자체를 하나의 캔버스처럼 구성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시각적 자극이 인상적이다.

운동시설은 단지 곳곳에 분산 배치돼 접근성이 높다. 기구 종류도 유산소·근력·스트레칭까지 고르게 갖췄다. 일부 공간은 철봉·링·밧줄을 하나의 구조물로 묶어 활용도를 높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번에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알찬 구성이다.

단지를 나서면 곧바로 전통시장 입구가 이어진다. 활기차면서도 정겨운 시장 분위기는 단지를 안팎의 전통적인 정서를 부각한다. 수원화성 인근이라는 입지와 맞물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metr



1 암석, 꽃, 수목이 어우러진 석가산 풍경. 2 단지에서 바라본 수원 화성. 3 공궐의 기와지붕을 닮은 단지 주출입구.

/성채리 인턴기자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美 매체 “홍명보호, 대진운 나빠” 48개국 중 20위 평가  
▲바르셀로나 ‘신성’ 야말…첫 월드컵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 악재 /사진 뉴스시스

▲이란 빼고 이탈리아 넣자?...트럼프 측 특사, 월드컵 출전국 교체 제안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 첼시, 3개월 만에 로세니어 감독 경질

▲EPL 맨시티, 아스널 제치고 선두 탈환...번리는 강등 확정  
▲‘김민재 교체·뽀기골 기점’ 원헌, 레버쿠젠 꺾고 포칼 결승 진출